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가정 밖 청소년의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조 보 영

2022년 8월



가정 밖 청소년의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지도교수 최 보 영

조 보 영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조보영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박 정 환



위 원

김 성 봉



위 원

최 보 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22년 8월



<국문초록>

가정 밖 청소년의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조 보 영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 보 영

본 연구는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사회적 요인의 관계를 살펴보고,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이론적, 실제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에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 대인관계능력, 자아분화, 기본심리욕구를 주요 변인으로 상정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가정 밖 청소년의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는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

연구대상자는 전국 16개 시도 52개소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296명으로, 온·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 자아분화, 기본심리욕구, 대인관계능력을 측정하는 설문을 진행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8.0과 PROCESS Macro 4.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순차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기본심리욕구는 애착불안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 애착회피와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둘째,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는 애착불안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완전매개하였고, 애착회피와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부분매개하였다.

연구 결과, 성인애착의 두 차원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가정 밖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에 서로 다른 경로로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또한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주된 매개효과 외에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동시에 발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의 주체로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전략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가정 밖 청소년, 성인애착, 대인관계능력, 자아분화, 기본심리욕구, 순차적 매개효과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및 가설	6
3. 연구모형	7
4. 용어의 정의	8
II. 이론적 배경	10
1. 가정 밖 청소년	10
가. 가정 밖 청소년의 개념	10
나.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및 특성	12
2. 성인애착	14
가. 애착의 개념	14
나. 성인애착의 개념	15
3. 대인관계능력	18
가. 대인관계능력의 개념	18
나.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	20
4. 자아분화	22
가. 자아분화의 개념	22
나. 성인애착과 자아분화의 관계	23
다. 자아분화와 대인관계능력의 관계	25
5. 기본심리욕구	27
가. 기본심리욕구의 개념	27
나. 성인애착과 기본심리욕구의 관계	28
다.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관계	30
라. 기본심리욕구와 대인관계능력의 관계	31

III. 연구방법	33
1. 연구대상 및 절차	33
2. 측정도구	35
가. 성인애착 척도	35
나. 대인관계능력 척도	36
다. 자아분화 척도	37
라. 기본심리욕구 척도	38
마. 인구사회학적 특성	38
3. 자료처리 및 분석	39
IV. 연구결과 및 해석	40
1. 주요 변인 간 기술통계	40
2.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41
3. 애착불안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42
가. 변인 간의 영향 관계 검증	42
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44
4. 애착회피와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46
가. 변인 간의 영향 관계 검증	46
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48
V. 논의 및 결론	50
1. 결과 요약 및 논의	50
2. 결론 및 제언	54
참고문헌	57
Abstract	71
부록	74

표 목 차

표Ⅲ-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4
표Ⅲ-2 성인애착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35
표Ⅲ-3 대인관계능력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36
표Ⅲ-4 자아분화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37
표Ⅲ-5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38
표Ⅳ-1 주요 변인 간 기술통계	40
표Ⅳ-2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41
표Ⅳ-3 애착불안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43
표Ⅳ-4 애착불안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45
표Ⅳ-5 애착회피와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47
표Ⅳ-6 애착회피와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49

그림 목 차

그림 I -1 애착불안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모형	7
그림 I -2 애착회피와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모형	7
그림 IV-1 애착불안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모형 경로계수	44
그림 IV-2 애착회피와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모형 경로계수	4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 시기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은 생애주기 전반의 변화와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시기의 주요한 과업은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심리 역동 이론에서는 원가족으로부터 개별화되는 과정을 성숙한 정체감 형성의 핵심 요인으로 제시했다(Perosa et al, 2002). 다수의 청소년은 부모의 지원 아래 성인기로의 원활한 이행 과정을 단계적으로 밟아간다. 그러나 원가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은 생존을 위한 탈출(한상철, 2008)이자 주체적인 삶의 의지(김영지, 1995)로 가출을 선택하기도 한다. 발달단계에 있는 이들은 보호 시설에 거주하며서 자립을 준비하거나(김희진, 백혜정, 김은정, 이미영, 2018), 일부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 외로움과 생계비 해결을 위해 가출팸을 형성, 폭행과 절도, 성매매와 같은 각종 비행에 유입될 위험 또한 높다(서보람, 김윤나, 2013). 특히 청소년 가출은 갈수록 저연령화, 장기화, 반복화, 보편화되는 경향을 보여(정경은, 2008) 개인의 위기를 넘어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2021년 3월 ‘가출청소년’ 대신 ‘가정 밖 청소년’으로 법률 용어가 변경되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2021). 이는 개인의 일탈적 행위로써의 가출이 아닌, 가정 밖으로 나오게 된 위험 상황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여성가족부, 2021). 청소년 가출의 요인은 다양하지만, 부모의 학대와 빈곤, 가정해체 등 청소년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환경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져 왔다(Kurtz & Kurtz, 199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이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정 밖 생활의 원인에 대하여 응답자의 74.2%가 ‘원가족과의 갈등 및 가족 폭력’이라고 응답했으며, 이중 가정복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19.6%에 불과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의 74.9%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시기를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성인기 이행시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김희진, 백혜정, 김은정, 이미영, 2018), 가정 밖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서 적응력과 주체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일차적 보호 환경인 가정을 떠나 대안 체계에서 살아가야 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대인관계능력은 성공적인 사회 안착을 위한 전제이자 필수 요건이 된다. Sullivan(1953)은 대인관계를 개인이 발달하고 성장하는 근원적 요소로 간주하고, 인간은 관계를 통해 삶의 안정감과 만족감을 찾아 나간다고 보았다. 실제 대인관계는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핵심 문제 중 하나로(Horowitz, 1996), 대인관계란 개인이 타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반응하고, 행동하는가와 관련된 심리적 지향성의 양식을 의미한다(Heider, 1964). 나아가 대인관계능력은 자신과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호작용하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의 대처 기술로 정의된다(Rubin & Mills, 1995). 문제 행동 청소년의 대부분은 긍정적인 대인관계 경험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관계기술이 부족한 경향이 있으며(안현주, 2001),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대인관계와 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정희, 2000).

가정 밖 청소년의 대인관계는 가족과 또래, 학교, 지역사회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 체계의 범주 안에서 매우 포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현지(2005)의 연구에서 가족관계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재가출을 방지하는 지지요인으로 나타났으나, 가정 밖 청소년의 가출생활 전환과정을 탐색한 정경은(2008)의 연구에서 가족 지지의 영향력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수록 학교생활을 지속하기도 하지만(한승희, 2020), 가정 밖 청소년의 대인관계 기술이 높을수록 귀가율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김은영, 송민경, 2009). 즉 가정 밖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은 상황맥락에 따라 적응적 또는 부적응적 대처 기술로 상이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대인관계 영역에서의 다양한 위협요인을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인 내적 자원의 중요성을 시사해준다. 그러므로 가정 밖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과 대인 간 요인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주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먼저 애착을 들 수 있다. 영아는 양육자가 자신의 요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 즉 내적작동모형을 형성하고, 이러한 내적표상은 이후의 관계 방식에도 일반화되어 나타난다(Bowlby, 1980). 성인애착은 성인기에 이르러 신체적, 심리적 안녕감을 주는 특정 대상과 친밀감을 유지하는 경향성을 뜻하며 (Berman & Spring, 1994), 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거절을 두려워하는 ‘애착불안’과 친밀한 관계 자체를 꺼려하는 ‘애착회피’의 독립된 두 차원으로 나누어진다(Brennan, Clark, & Shaver, 1998). 많은 연구자들은 발달 초기 형성된 부모 애착보다 현재 친밀한 타인과의 애착 성향이 대인관계 패턴을 더 적절히 반영한다고 주장해왔다(Batholomew & Horowitz, 1991; Britton, 2005). 따라서 양육자와 분리되어 일찍 성인기로의 전환을 맞이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상황적 조건을 고려할 때, 부모애착 보다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을 더욱 유의하게 예측할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선행연구를 보면,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대인관계능력의 수준이 높았고(정지윤, 2014), 불안정한 성인애착을 형성할수록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해 대인관계의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중운, 김남희, 2019). 또한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성인애착의 두 차원 중 애착회피가 애착불안보다 대인관계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이주혜, 조영아, 2014; 정성한, 김완일, 2016; 최인선, 주은지, 2021). 해체가정 위기 여자 청소년의 성인애착을 살펴본 고민좌(2017)의 연구에서도 애착불안 청소년은 프로그램 실시 후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애착회피 청소년의 대인관계에는 유의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상이한 내적작동모델에 따라 서로 다른 경로로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성인애착을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주로 정서적 변인을 매개로 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서와 인지, 관계적 차원을 포괄하는 자아분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자아분화는 Bowen(1978)의 가족체계이론의 핵심 개념으로, 감정과 이성을 분리하는 심리내적 차원과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는 대인관계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정서적 기능에서 지적 기능이 분화된 정도를 뜻하는 심리내적 차원과 원가족으로부터 개별화된 정도를 뜻하는 대인관계적 차원에 의해 개인의 분화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 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사고와 감정을 분리하여 외부 세계를 지각하고, 목표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며, 대인관계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한다(Bowen, 1978; Keer & Bowen, 2005). 반면, 분화 수준이 낮은 개인은 타인의 견해에 쉽게 동조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비난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특성을 갖는다(Bowen, 1982; Hansen & L'Abate, 1982). 그러므로 가정 밖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원가족과의 이른 분리 경험에 따른 개인의 분화 수준을 고려한 상담 개입이 이루어져야 것이다.

애착과 자아분화의 관련성은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왔다.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고등학생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아분화 수준이 높았고(박성은, 2015), 불안정한 성인애착의 두 차원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모두 개인의 분화 수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솔비, 2020; 성순이, 김해란, 2018; 임선화, 2015). 한편 자아분화와 대인관계능력 간에도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원가족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여 높은 자아분화 수준을 지닌 대학생일수록 가정의 위기 상황에서도 기능적으로 갈등을 처리하며, 이는 대인관계능력에도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신소림, 2015). 이외에도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 정서와 대인관계문제를 더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배미예, 이은희, 2009). 따라서 불안정한 성인애착은 낮은 자아분화 수준을 매개로 대인관계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가정 밖 청소년의 성인애착, 자아분화,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 역할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자기결정이론의 6가지 미니이론 중 하나인 기본심리욕구는 인간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최근 사회심리학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개념이다. 긍정심리학자 Deci와 Ryan(2000)는 스스로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자율성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유능성, 환경과 효율적으로 작용하면서 타인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관계성의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가 균형적으로 충족될 때, 심리 내적 성장은 물론

타인이나 다른 집단과의 상호작용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전미숙과 김형모(2017)는 자기결정, 공동체 인식, 개인적 능력과 관련된 임파워먼트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이상준(2014)의 연구에서도 개인내적, 대인관계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사회적 탄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 밖이라는 취약한 상황에서도 개인의 내적 자원이 충족될 경우 더욱 원활한 사회 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많은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가 대인관계능력의 유의한 선행변수임을 밝혀왔다. 기본심리욕구 만족이 낮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대체로 더 많이 보고하였고(박지아, 김완일, 2017; 정경아, 2015), 청소년의 부모애착, 기본심리욕구, 대인관계의 관계를 살펴본 이민화(2012)의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 충족은 부모에 대한 애착보다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의 변량을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애착과 기본심리욕구와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 김동환(2020)은 불안정 성인애착과 기본심리욕구의 부적 상관성을 제시하였고, 김소연(2020)의 연구 결과 애착불안은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 자율성과 유능성에, 애착회피는 관계성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본심리욕구는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윤성민(2016)은 자아분화의 강도가 높을수록 이성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본심리욕구를 더 잘 충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가정 밖 청소년의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이 자아분화 수준을 낮추고,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감소시켜, 대인관계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지금까지 아동과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나,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인간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정요인으로부터 개인 내적 자원을 거쳐 사회적 대인관계로 나아가는 확장된 경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 변인인 성인애착이 사회 변인인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개인 내적 변인인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을 독립변인으로, 대인관계능력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가 이들 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

가설 1.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가 각각 매개할 것이다.

가설 2.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가 순차적으로 매개할 것이다.

3. 연구모형

본 연구는 가정 밖 청소년의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성인애착은 애착불안(그림 I-1)과 애착회피(그림 I-2)의 두 가지 독립된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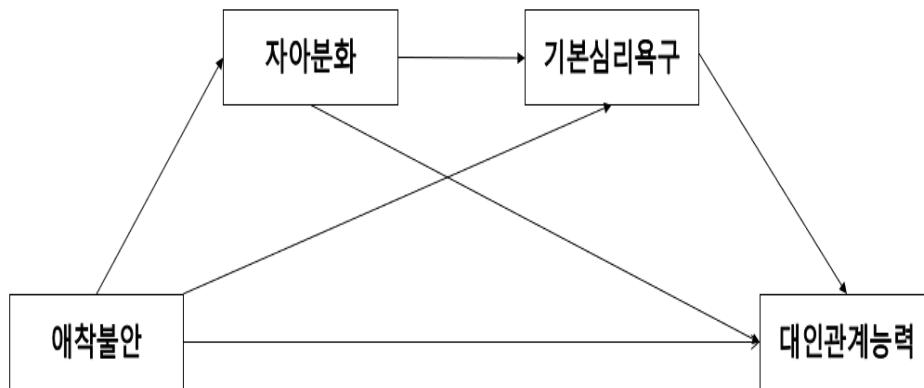


그림 I-1 애착불안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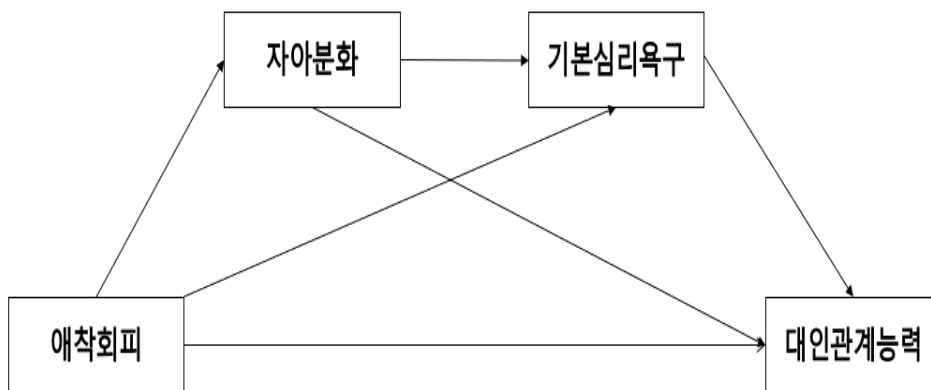


그림 I-2 애착회피와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모형

4. 용어의 정의

가. 가정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이 없거나 그 가정으로부터 이탈된 청소년, 또는 가정 내 보호자가 적절한 보호 및 양육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청소년’을 포함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가정 밖 청소년 보호기관인 청소년쉼터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의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항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나. 성인애착

생애 초기 형성된 양육자와의 애착이 내적 표상으로 내재화되어, 상호적 관계에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 특정한 사람과 접근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West, Sheldon & Reiffer, 1987). 이는 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애착불안과 친밀한 관계를 꺼려하는 애착회피의 독립된 두 차원으로 나뉘며(Brennan, Clark, & Shaver, 1998). 불안정한 정서적 특성과 관련된다.

본 연구에서는 김성현(2004)이 사용한 친밀관계경험검사 개정판(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의 하위영역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두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다.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는 개인이 타인을 대하는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성으로써, 타인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반응하는가, 타인을 어떻게 지각하고 타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는가, 타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내적 특성과 외적인 행동 간의 관계를 가리킨다(Heider, 1964). 대인관계능력은 자신과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며 상호작용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Rubin, Mills, 1995).

본 연구에서는 박영호(2006)가 사용한 대인관계능력 척도의 하위영역인 만족감, 감정이해, 의사소통, 개방성으로 구성하였다.

라. 자아분화

Bowen(1976)의 가족 체계 이론의 핵심 개념인 자아분화는 개인의 심리내적 차원과 대인관계적 차원으로 분류된다. 심리내적 차원은 사고와 정서를 분리할 수 있는 정도를, 대인관계적 차원은 타인으로부터 분화되어 개별화되는 정도를 말한다(Kerr & Bowen, 1988).

본 연구에서는 제석봉(1989)이 사용한 자아분화 척도(Self-Differentiation Scale)의 하위영역인 인지정서, 자아통합, 가족투사, 정서적단절, 가족퇴행으로 구성하였다.

마. 기본심리욕구

인간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심리적 욕구이자, 내재적 동기 발생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보편적이고 생득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다(Deci & Ryan, 2002). 이는 스스로를 행동의 주체로 인식하는 자율성, 자신의 역량을 신뢰하고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유능성,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사회와 연결되었다고 느끼는 관계성의 세 가지 욕구를 포함한다(Deci & Ryan, 2000).

본 연구에서는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사용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 척도(Korea 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의 하위영역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으로 구성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 밖 청소년

가. 가정 밖 청소년의 개념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바꾸고,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개인의 이탈과 비행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는 ‘가출청소년’ 대신, 가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과 위협 상황에 초점을 두는 ‘가정 밖 청소년’으로 법률 용어가 변경되었다(여성가족부, 2021). 이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가출청소년’의 용어를 개념적 정의에 한하여 ‘가출청소년’으로 그대로 인용하고, 그 외 관련 이론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개정 용어로 대체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가정 밖 청소년의 개념은 시대의 변화와 학자의 관점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해 왔다. Robert(1987)는 가출청소년을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보았고, Garbarino 외(1996)는 가출의 의도를 명시하여 ‘부모의 허락 없이 최소 하룻밤 이상 집을 떠나 부모의 인식과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행동을 하는 청소년’으로 규정했다. 또한 한상철(2008)은 가출 행위가 아닌 가출로 야기되는 정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 가출을 ‘가정이나 보호 시설로부터 벗어난 청소년이 정신적·물리적 지지의 결핍으로 신체적 고충과 정신적 소외감, 지위 상실을 겪는 청소년의 심리 상태’로 정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반면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에서 ‘개별화를 억누르는 가족 상황으로부터 이탈해 자신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노력(Crespi & Sabatelli,

1993)’ 또는 ‘적극적으로 어려움에 뛰어들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으려는 문제 해결의 과정(김영지, 1995)’으로 청소년 가출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청소년 가출 유형은 가출의 원인과 목적에 따라 연구자에 의해 다양한 범주로 나누어진다. 가장 고전적인 개념으로 Homer(1973)는 가출의 동기에 따라 쾌락과 모험을 좇는 ‘추구형 가출’과 빈곤, 학대 등 가족 문제로부터 벗어나려는 ‘탈출형 가출’의 이분법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홍봉선과 남미애(2006)는 가출의 목적을 보다 세분화하여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유희형 가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위형 가출’, 집 밖의 생활을 즐기는 ‘방랑형 가출’, 가족들의 무관심으로 떠밀려 나온 ‘추방형 가출’,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의한 ‘생존형 가출’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밖에도 정운숙과 박신애(2001)는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집 밖으로 내쫓는 방출 요인, 집 밖으로 끌어내는 유인 요인, 가출 행위를 유발하는 촉발 요인 등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개념화했다.

제도적 영역에서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독립된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2004년 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에서는 위기청소년을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위기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8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가정 밖 청소년은 사회환경적 위험 상황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취약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적 정의로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을 일컫는다.

이와 같은 개념적 정의는 청소년 가출을 개인의 문제 행동으로 바라보던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개인 요인을 포함한 가정, 학교와 또래, 지역사회 등 다양한 사회 환경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생태체계적 관점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함의한다.

나. 가정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특성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부재하나, 관련 자료를 통해 개략적인 추이를 짐작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1)에 따르면 전국 초(4~6)·중·고등학생의 최근 1년 내 가출 경험률은 전년 대비 0.3%가 증가한 3.2%로 나타났고, 2018년 기준 9~18세 청소년 중에서 가정 밖 청소년이 될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의 수를 추산하면 약 5만 6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19세 이상 청소년의 수를 감안할 때, 실제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20년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초 가출 연령은 13세~15세가 5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13세 미만의 경우에도 10.1%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19세 미만의 위기청소년 가운데 6.5%는 ‘조건 만남’을 경험했으며, 이들 중 43.3%는 지낼 곳을 마련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황여정, 이정민, 김수혜, 2020),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청소년 가출은 개인, 사회, 환경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지만, 다수의 연구에서 부모의 학대와 방임, 빈곤, 가정해체 등을 포함한 가정 요인을 청소년 가출의 주된 이유로 제시하였다(Kurtz & Kurtz, 1991; Whitbeck & Hoyt, 1999).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의 61.0%는 ‘부모와의 문제’를 가출의 원인으로 꼽았고(황여정, 이정민, 김수혜, 2020), 쉼터 거주 가정 밖 청소년의 67%는 가정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전민경, 2016). 이는 원가정의 환경적 위험 요소를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실제로 조천재(2019)의 연구를 보면 참여자의 60% 이상이 가족의 구조적 결손을, 80%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일심(2013)의 연구에서도 참여자의 90%가 이혼과 재혼 또는 한부모 가정에 속했으며, 친모·친부와의 갈등, 새엄마와의 갈등, 가정폭력, 친부 성폭행, 가정해체 등 부적절한 가정환경을 포함한 가족관계 요인이 가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였다.

가족의 구조적인 결손은 기능적인 결손으로 이어져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더욱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가정을 떠남으로써 불안과 혼란의 부정 정서를 경험하는 동시에 사회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를 박탈당하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한다(신민향, 2001). 최해경과 김선숙(2009)은 가족관계가 나쁠수록 더 우울하고 어린 시기에 가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습적인 가출에도 영향을 미쳐 우울 정도를 더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가정 밖 청소년은 비가출 청소년에 비해 자아개념이 낮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며, 방어적이고, 자기의심이 많은 정서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노혜련, 김형태, 이종익, 2005). 13세~20세의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MMPI 검사 결과에서도 참여자들은 내적 불안과 반사회성 및 충동성이 높고 주의집중에 어려움을 보였으며, 대인관계에서 의심과 불신이 많은 매우 복잡적이고 불안정한 상태임이 확인되었다(이세정, 이호준, 2010).

가정 밖 청소년에 관한 실증 연구는 미진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 밖 청소년의 위기 상황에 따른 학교생활부적응, 반복가출, 우울, 부모학대, 폭력비행, 자살생각 등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김재엽, 김준범, 장용언, 한기주, 2016; 김재엽, 성신명, 박하연, 한기주, 2018; 최서연, 2021), 보호요인으로써 사회적지지와 관련된 연구(김연주, 2020; 김옥수, 2020; 김은녕, 서보람, 2018; 유서구, 최은영, 2012; 이장범, 2012; 이희춘, 2013), 개인 내적 자원인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임파워먼트 등에 관한 연구(김연주, 2020; 이상준, 2012; 이장범, 2012; 이희춘, 2013; 전미숙, 김형모, 2017)가 수행되어왔다. 즉, 가정 밖 청소년이 직면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문제의 심각성과 개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관련 연구의 축적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 발달의 관점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개인, 가정, 사회적 요인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2. 성인애착

가. 애착의 개념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의 본능적 반응으로 애착을 추구하고,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은 자신과 타인의 상호작용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기제가 된다. 애착 이론은 인간관계 내에서의 적응 패턴을 설명하기 위한 구성개념으로 1930년대 Bowlby가 제안, Ainsworth와 함께 연구의 확장이 이루어졌다(장휘숙, 2004). 볼비는 대학 시절 만난 비행 청소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어린 시절 양육자와의 분리 경험이라는 점에 주목하여(Holmes, 1993), 이후 애착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애착(attachment)이란 한 개인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느끼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를 말하며(Bowlby, 1969), 애착 이론은 영아와 주 양육자와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발달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 이론적 기반을 둔다.

Bowlby는 동물과 인간의 적응행동을 연구하는 동물행동학의 이론에 기초하여 애착 현상을 설명하였다(장휘숙, 2004). Bowlby(1969)에 따르면 영아는 애착 대상과의 분리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울음이나 미소와 같은 선천적인 사회적 신호를 보내어 자신에게 ‘근접’하게 만들고, ‘접촉’ 상태를 유지하여 안정된 애착을 형성해간다. 반면 영아의 사회적 신호에 대한 애착 대상의 비일관적인 반응은 불안정한 애착을 발달시킨다. 애착 이론에서는 양육자와 영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애착이 내적작동모델의 형태로 발전되어 대인 간 상황에서도 활성화 되는 것으로 보았다. 애착 이론의 핵심 개념인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으로, 자신을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자기 표상과, 타인을 신뢰롭고 접근 가능한 존재로 인식하는 타인 표상의 두 차원으로 나뉜다(Bowlby, 1988).

생애 초기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은 환경에 반응하면서 유동적으로 작동되다 반복되는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 강화되어 점차적으로 변화에 저항한다(Thompson, Lamb & Estes, 1982, Egeland & Farber, 1984). 이후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

고 성격의 중요 구성 요소를 이루며(장휘숙, 1997), 전 생애에 걸쳐 심리적 건강의 기초 요인으로써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Ainsworth, 1989). 내적 행동모델은 애착 행동 체계의 경험에 대한 표상, 그 경험에 기반하여 형성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념과 정서 및 동기, 애착 행동 체계가 발현된 행동적 책략에 대한 표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다(Collin & Read, 1994b). 긍정적인 자기 표상과 타인 표상에 의한 안정 애착은 사회적 관계에서 친밀감과 신뢰감을 높여 적응 행동으로 발현되지만, 부정적인 자기 표상과 타인 표상에 의한 불안정 애착은 역기능적인 신념과 사고를 강화하여 부적응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애착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부모와의 낮은 애착은 청소년 가출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임이 보고되었다(남미경, 이경님, 2009; 홍세희, 노언경, 박민선, 2010). 가정 밖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 보다 우울증의 비율이 높았으며, 우울과 애착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미애, 홍민하, 김영은, 하주원, 이상민, 김현수, 2016). 이는 부모에 대한 높은 애착이 낮은 우울과 관련된다는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오송희, 1999; 이경님, 2003). 부적응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집단을 비교 분석한 연구를 보면, 부적응 청소년 집단은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해 안정 애착 비율이 현저하게 적었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의 유형이 더 많았다(김재희, 주은선, 2001). 반면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 형성은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지위 비행을 낮추는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밝혀져(박은하, 권세원, 2010). 애착은 개인의 정서적 기능을 포함한 전반적인 삶의 적응적 기능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성인애착의 개념

초기 연구에서 애착은 영아와 양육자 사이의 애정적 유대만을 의미했으나, 이후 전 생애 동안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할 수 있는 정적 유대로 개념이 확대되었다(장휘숙, 2004). Bowlby(1988)는 애착 이론을 유아나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의 특정 행동 경향과 특징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양육자와의 애착은 개인의 성장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성인애착은 부모에서 친구 혹은 연인으로 애착의 대상이 전환된 것을 말한다(Hazan & Shaver, 1987). 성인애착(adult attachment)이란 생애 초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내적 표상의 형태로 내재화된 것으로, 타인과의 상호관계에서 안정감과 신뢰감을 얻기 위해 개인이 선호하는 특정인과 밀착되어 유지하려는 경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West, Sheldon, & Reiffer, 1987). 즉, 성인애착은 애착 경험에 따른 심리적 표상이 관계 양식으로 재현되는 것이다.

성인애착의 초기 모델은 Hazan과 Shaver(1987)의 제안에 따라 안정애착, 불안-양가애착, 회피애착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유형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차이가 있더라도 일치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 분류 체계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자기-타인 이원 모델의 긍정적, 부정적 표상에 따라 안정형(자기긍정-타인긍정), 거부형(자기긍정-타인부정), 몰입형(자기부정-타인긍정), 공포형(자기부정-타인부정)의 4개의 범주 체계를 제시했다. Brennan, Clark와 Shaver(1998)은 대학생 피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성인애착은 범주가 아닌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라는 독립적인 두 차원으로 구성됨을 밝혔다. 이후 차원형 모델로 접근하는 방식이 범주형 모델보다 더 높은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raley & Waller, 1998).

차원론에 의하면 불안과 회피 차원이 모두 낮을수록 안정 애착에 가깝고, 두 차원 중 하나가 높거나 모두 높을수록 불안정 애착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한다(박인숙, 김은하, 2018). 애착불안은 부정적인 자기 표상과 관련된 것으로,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거부와 버림받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애착회피는 부정적인 타인 표상과 관련된 것으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불편해하며 상대방과 일정하게 정서적인 거리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김성현, 2004; Mikulincer & Shaver, 2008). 특히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애착불안보다 애착회피가 대인관계에 더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어왔다(김민주, 오은주, 2021; 이주혜, 조영아, 2014; 최인선, 주은지, 2021). 이를 통해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지닌 애착회피의 경우 관계 자체를 거부하려는 경향으로 인하여 친밀한 관계 형성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애착 이론가들은 애착의 특성이 변화가능한 것인지, 지속되는 것인지에 따라 성인애착의 가변성과 안정성을 강조한다.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유아기 애착과 달리 성인애착은 애착을 주고받는 대상 간 상호작용에 의해 애착이 형성되므로(Ainsworth, 1989), 영유아기에 비해 성인기 애착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이에 일부 연구자들은 애착 대상에 따라 개인의 애착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성인애착의 가변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애착 분류의 안정성 또한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꾸준히 지지되어 왔다. 즉 초기 애착의 질적 특성은 성인기에도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며, 초기 성인기의 대인관계와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Bretherton, 1985). 따라서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어린 시절 형성된 내적표상이 가정 밖 청소년의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대안 관계에서 살아가는 가정 밖 청소년의 현재 애착 대상에게 어떠한 패턴으로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한 접근이라고 하겠다.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성인애착의 두 차원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가정 밖 청소년의 사회 적응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경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의 애착불안 및 애착회피 수준을 낮출 수 있는 변화 가능한 매개변인을 탐색하고, 각 차원에 따른 변인들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3. 대인관계능력

가. 대인관계능력의 개념

인간의 성장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전제로 이루어지며, 대인관계능력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핵심 역량이다. Sullivan(1953)은 대인관계를 개인 발달의 근원으로 간주하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전 생애에 걸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 만족과 안정을 찾아 나간다고 하였다. 대인관계의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Heider(1964)는 대인관계를 개인이 타인에 대해 어떠한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하며, 타인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타인에 어떠한 기대를 갖는가에 관한 개인이 타인을 대하는 보편적인 심리적 지향성이라고 보았다. Rubin & Mills(1995)는 대인관계능력에 대해 타인과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상호작용하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에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를 대처하는 기술로 정의했다. 즉 대인관계능력은 심리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문선모(1980)는 Schlein과 Guermey(1977)의 연구에 기초하여 대인관계의 구성개념을 만족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의사소통, 신뢰감, 이해성의 7가지 요인으로 제시했다. 이후 박영호(2006)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만족감, 감정이해, 의사소통, 개방성의 4가지 범주를 포함하는 23문항으로 대인관계능력의 하위요인을 재구성하였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만족감, 이해성(이성적인 판단과 해석을 포용할 수 있는 정도, 타인의 느낌을 이해하는 난이도와 타인과 대화에서 느끼는 난이도의 정도, 나에게 대한 타인의 부정적 느낌을 건설적으로 대하는 정도, 미래에 맺고 싶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 정도) 및 감수성(타인에 대한 나의 느낌 정도)과 민감성(타인과의 의견 불일치를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는 정도)을 포함하는 감정이해, 원하는 것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전달하고 수용하는 능력인 의사소통, 자신의 내면 및 행동을 타인에게 솔직하게 드러내는 개방성으로 구성된다(박영호, 2006).

대인관계 정신분석학자 Sullivan(1953)에 따르면 청소년 전기(13세 이전)는 동성 또래와의 친근한 관계에 강한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청소년 중기(14~17세)에 이르면 급격한 신체 변화로 인한 성적 욕망과 함께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어 또래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청소년 후기(17~20세)에는 자아 역동성이 전체적으로 발달하고 결정되는 시기로, 후기 청소년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이루기 위한 사회화 과정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청소년기에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경우 정체감이 확립되고, 건전한 성격 발달이 이루어지며, 자아성취감, 행복감, 욕구 만족 등을 경험할 수 있게 되지만,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은 불안, 우울, 소외, 욕구 좌절 등 심리적 병리를 초래할 수 있다(이은정, 2008). 그러므로 대인관계능력은 건강한 자아상과 사회적 능력을 획득해야 하는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가정 밖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부모, 또래, 교사, 지역사회와 다양한 지지체계가 가정 밖 청소년의 가출 행위와 가출 생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정 밖 청소년은 대체로 부모와 낮은 애착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가출 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최해경, 김선숙, 2009; 홍세희, 노언경, 박민선, 2010). 특히 초기 청소년에서 중·후기 청소년으로 갈수록 가정 요인과 함께 비행 친구와의 유대관계가 가출 경험을 더욱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배정환, 이운호, 심혜인, 이정민, 2013),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가정 밖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학업중단율이 유의하게 감소하기도 했다(김지혜, 안치민, 2006). 또한 사회적 지지원과의 안정된 관계 경험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보고되었다(김은정, 백혜정, 김희진,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정 밖 청소년들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요인, 개인 내적 요인, 대인 간 요인들의 관계를 보다 종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나.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

어린 시절 애착 경험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표상으로 심리 내적 체계를 이루며, 이러한 내적 표상은 이후 관계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반응을 예상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인지적 틀이 되어 대인관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Kiesler, 1996). 안정된 애착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으로 친밀한 관계 형성이 가능하지만, 불안정 애착을 형성할수록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정적인 표상이 활성화되어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 Bartholomew과 Horowitz(1991)의 연구에서 안정형으로 분류된 집단은 내향성과 냉담함이 낮고, 더 잘 표현하며, 대인관계 문제도 덜 경험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반면 Mikulincer과 Shaver(2005)에 따르면 불안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거절을 더 부정적으로 느끼고 비일관적인 정서 반응과 행동을 보였으며, 회피적 성향이 높은 경우에는 자기 노출을 꺼려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과 만족도가 더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두 변인 간에 부적상관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김중운, 김남희; 2019; 정지윤, 2014; 황윤정, 2016). 이는 불안정한 성인애착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의 수준이 낮고, 불안정한 애착이 낮을수록 더 높은 대인관계능력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성인애착의 두 차원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서로 다른 내적작동모델의 경로를 통해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착불안보다 애착회피가 대인관계능력에 대해 더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는 결과들이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어왔다(강수진, 최영희, 2011; 김록현, 2018; 정성한, 김완일, 2016; 최인선, 주은지, 2021). 이러한 결과는 미숙한 관계 양식으로 상호작용 과정에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얻는 애착불안 유형보다, 관계 맺기를 거부함으로써 긍정적 영향을 누릴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애착회피 유형이 대인관계에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이주혜, 조영아, 2014).

이에 따라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직접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매개변인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김민주과 오은주(2021)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

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여 타인과의 가까운 관계 형성에 방해를 받게 됨으로써 대인관계능력이 저하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황윤정(2016)은 불안정한 성인애착을 형성할수록 스스로에 대한 낮은 자기자비적인 태도로 인해 대인관계능력을 형성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애착회피가 애착불안보다 대인관계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최인선과 주은지(2021)의 연구에서도 애착불안은 가족건강성을 경유하여 대인관계능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나, 애착회피의 경우에는 대인관계능력에 간접적인 효과와 직접적인 효과를 동시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라는 불안정한 성인애착을 지니고 있더라도 매개변인의 투입으로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부적 영향을 낮출 수 있으며, 불안과 회피 기제에 따라 개입의 초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4. 자아분화

가. 자아분화의 개념

가족치료의 선구자인 Murray Bowen은 가족 내 ‘정서’와 ‘관계’ 체계에 방점을 두어 ‘자아분화’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자아분화란 개인이 정서와 사고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개별화된 정도를 가리킨다(Bowen, 1976). 즉 지적 기능이 정서적 기능에서 얼마나 잘 분리되어 있는가에 관한 정신 내적 측면과 스스로 확고한 신념 및 자아를 지닌 존재로서 독립적인 행동을 하는가에 관한 대인 관계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Kerr & Bowen(1988)에 의하면 자아분화는 친밀성과 독립성이라는 두 가지 본능적인 욕구를 중심으로 발달하며, 친밀성은 관계 속에서 안정과 소속감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독립성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친밀성과 독립성의 상호작용에 의해 개인의 분화수준이 결정되어진다.

분화수준은 기본분화와 기능분화로 나뉜다. 기본분화(basic differentiation)는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다세대 정서 과정에 의한 원가족과의 정서적 분리 수준을 반영하는 반면, 기능분화(functional differentiation)는 현재 맺고 있는 관계 과정에 의존하는 기능으로 원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기본분화 수준보다 낮거나 높게 작용한다(정문자, 정혜정, 이선희, 전영주, 2012). 또한 Bowen(1978)은 개인의 기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자아분화 척도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감정적, 지적 기능의 융합과 분화 정도에 따라 0~25, 25~50, 50~75, 75~100의 범주를 갖는다. 분화 정도가 높을수록 타인과의 정서적 융합이 적으며, 확실한 자아감과 분명한 신념을 형성한다. 이와 다르게 분화의 정도가 낮을수록 감정에 지배를 받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개별성을 희생하며, 스트레스 상황에 쉽게 역기능적이 된다(Bowen, 1978).

자아분화는 인지정서, 자아통합, 가족투사, 정서적단절, 가족퇴행의 다섯 가지 구성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고와 감정의 분화로 지적

기능이 정서적 기능에서 얼마나 분화되었는가와 관련된 인지정서, 타인의 정서적 압력에 쉽게 변하는 가짜 자아(pseudo self)가 아닌 자기 자신의 확고한 신념으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진짜 자아(soild self)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된 자아통합, 부모와 자녀의 삼각관계 안에서 부모의 자아 분화 수준이 자녀에게 전가되는 것과 관련된 가족투사, 미분화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부모와의 미해결된 감정과 관련된 정서적 단절, 가정의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건설적인 방법보다 퇴행적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과 관련된 가족퇴행으로 개념화된다(Bowen, 1982). 이러한 구성개념은 각각 분절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순환 체계를 이룬다.

청소년기는 원가족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고 타인과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발달 단계이므로, 자아분화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매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청소년기가 자아분화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관련 선행연구는 분화의 진행이 느려지는 대학 생활 이후에 집중되어왔으며(김은주, 2012). 청소년의 자아분화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일반청소년을 대상에 한정되어 부적응 청소년의 자아분화를 살펴본 연구는 극히 드물다(고민좌, 2000). 또한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가족퇴행이나 정서적 단절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 단절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김은주, 2012). 이는 원가정에서 이른 분리를 경험하고 심리적 독립을 성취해야 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자아분화는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주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아분화가 대인관계능력을 예측하는 선행 변수로써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나. 성인애착과 자아분화의 관계

Bowlby의 애착 이론과 Bowen의 자아분화 이론은 애착과 독립성, 일체성과 개별성의 개념으로 인간의 발달과정과 유사하게 접근한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련성

을 가진다. 안정된 애착은 애착과 독립성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룬 것을 말하며, 높은 분화 수준은 개별성과 일체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룬 상태를 뜻한다(황영훈, 박은영, 2003). 애착이 안정된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표상으로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나치게 융합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개체성을 잘 유지한다. 반면 불안정한 애착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으로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꺼려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해 독립된 개체로 기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건강한 심리사회적 발달을 이루기 위해 애착과 독립성이 모두 요구되며, 부모로부터의 개별화 과정 또한 친밀한 단계의 단절이 아닌, 관계성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황영훈, 박은영, 2003).

성인애착과 자아분화의 관계를 살펴본 여러 연구에서는 두 변인 간의 부적 상관을 보고하였다(김민주, 오은주, 2021; 아영아, 이명희, 2016; 이은선, 2020; 임선화, 2015). 즉 불안하고 회피적인 애착을 형성할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 애착을 지닌 외상경험자는 원가족과의 융합된 관계로 심리적 고통이 더 가중되는 경향을 보였고(성순이와 김해란, 2018),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사고와 정서의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 상황에서 역기능적으로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이성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강슬비, 2020). 임선화(2015)에 따르면 부정적인 자기표상의 애착불안은 타인의 기준을 우선시하고 버림받음에 대한 정서적 압력을 받는 반면, 부정적인 타인표상의 애착회피는 타인과 접촉을 피하고 정서적인 단절을 하기 때문에 두 차원 모두 사고와 정서를 적절하게 분리, 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불안정한 성인애착은 분화 수준을 낮춰 개인뿐 아니라 대인 간 상황에서도 다양한 역기능적인 문제를 초래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아분화를 애착의 선행요인으로 상정하여, 자아분화와 애착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도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양수진과 이정운(2012)의 연구 결과 부모 애착은 성인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아분화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정된 부모애착이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고, 자아분화 수준이 안정적인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배달샘(2016)의 연구에서 애착회피는 자아분화와 대인관계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임이 밝혀졌으나, 애착불안의 매개효과는 유효하지 않았다. 또한 안유진(2016)의 연구에서 자아분화와 성인애착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였지만, 회귀 분석 결과 자아분화가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자아분화와 성인애착의 관련성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 추후 더 많은 경험적 연구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가정 밖 청소년의 성인애착이 자아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 자아분화와 대인관계능력의 관계

원만한 대인관계능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심리내적 측면에서 감정과 이성을 분리하고, 대인관계적 측면에서는 자신과 타인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건강하게 분화된 자아는 대인관계에서 적응적인 기제로 작용하지만, 미분화된 자아는 대인 간 상황에서 부적응적인 문제행동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적응적 행동과 적응적 행동은 개인의 분화 수준에 따라 다르게 발현됨을 예측할 수 있다. Bowen(1976)은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정체감과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과 정서적으로 친밀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간다고 보았다. 반면,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융통성이 부족하고 의존적이며 역기능적인 행동을 나타내기 쉽다(Bowen, 1978). 요컨대 분화된 사람은 정서적 과정과 인지적 과정에 대한 구별을 바탕으로 대인관계적 상황에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것이다(배미예, 이은희, 2009).

자아분화는 주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에 의해 발달하게 되며, 개인의 분화 수준은 전 생애에 걸쳐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지속적으로 작용한다.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독립성과 개별성, 자율성을 강조하는 서구와는 달리 부모 자녀 간 상호의존적이고 관계중심적인 문화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아분화 수준은 한 개인의 성숙도 및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김경진, 2013). 이윤영(2016)의 연구 결과 부모 자녀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수록 자녀의 자아분화 수준이 낮아져 대인관계 갈등 상황에서 비합리적이

고 감정적인 지배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남상철과 유영달 (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보다 자녀의 자아분화가 자녀의 대인관계문제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건강한 심리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양육 과정에서 자녀의 자아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성숙한 양육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청소년기의 자아분화 정도가 대인관계능력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결과를 제시하였다. 자아분화와 대인관계문제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어(김인영; 2016; 남상철, 유영달, 2007; 조연주, 2016),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를 적게 경험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어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자아분화는 부모애착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독립된 인격을 갖추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의 건강한 분화가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성령, 2016). 또한 김희숙(2013)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자아분화를 형성한 경우, 대인 간 문제 상황에서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타인과의 적절한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대인관계능력을 예측하는 선행 변수로써 타당하지를 검증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5. 기본심리욕구

가. 기본심리욕구의 개념

인간의 내적 동기와 행동의 자기 조절을 강조하는 기본심리욕구는 Deci와 Ryan(1985, 2000)의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개념으로, 최근 사회과학, 교육학, 예술 체육, 인문학 등 광범위한 학문 분야에서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인지평가이론(cognitive evaluation theory), 유기체통합이론(organismic integration theory), 인과지향성이론(causality orientation theory), 기본심리욕구이론(basic psychological needs theory), 목표내용이론(goal contents theory), 관계동기이론(relationships motivation theory) 등 여섯 가지 미니 이론(mini-theory)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거시이론(macro-theory)을 말한다. 각각의 이론은 자기결정성의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구성개념으로, 자기결정성 이론은 심리적 요인인 동기를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확대하여 설명한다.

자기결정성 이론의 전제는 인간을 능동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유기체로 가정하는 것이다(Deci & Ryan, 2000). 이때 개인의 행동은 자기결정성에 의해 조절되고, 자기결정성은 기본심리욕구 만족의 영향을 받는다(이명희, 김아영, 2008). 기본심리욕구란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이자 타고나는 필수 조건으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한다(Deci & Ryan, 1985, 2000). 개인의 환경이 이 세 가지의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지지할 경우 학습과 성장, 발달을 경험하며 안녕감을 지각할 수 있지만, 개인의 환경이 세 가지의 욕구 충족을 좌절시킨다면 건강한 성장 경험과 심리적 안녕감을 지각할 수 없게 된다(Reeve, Jang, 2006). 결국 자기결정성은 스스로 환경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취할 것인지 개인의 의지를 결정하는 과정과 관련되며(김아영, 2010; Deci, 1980), 세 가지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통해 개인의 내재동기가 활성화되는 정도에 따라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Ryan과 Deci(2002)에 따르면 자율성은 세 가지 욕구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외부의 압력과 통제에 상관없이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내재

동기 및 긍정적인 감정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Reeve, 2005). 유능성은 자신이 효율적이고, 유능하다고 느끼고 싶어 하는 욕구이다(Ryan & Deci, 2000). 이는 사회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기술과 능력, 재능을 발휘할 기회들을 경험할 때 충족되며, 획득된 기술이나 역량보다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끼는 지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 유능감으로 표현되기도 한다(김아영, 2010). 마지막으로 관계성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타인이 자신을 배려한다고 느끼며,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낄 때 충족되는 욕구로 정의할 수 있다(Deci & Ryan 2002). 관계성은 내재동기에 직접적인 역할을 미치지 않지만, 내재동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율성, 유능성과 함께 관계성에 대한 욕구 충족이 전제되어야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 중 자율성과 관계성이 높으면 대학생활 만족도가 증가하였고(김은주, 2007), 관계성은 내재동기에도 영향을 미쳐 수업참여도를 향상시키는 나타났다(김은주, 도승이, 2009). 또한 자기결정성의 내적 동기가 높은 청소년은 학업성취도가 높고 정보처리 과정에서도 더 효율적이었으며(조한익, 권혜연, 2011), 기본심리욕구는 주관적 안녕감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자율성과 유능성, 관계성의 욕구가 충족될수록 행복감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짐이 확인되었다(소은희, 신희천, 2011). 사회 적응적 측면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나, 관련 개념으로 개인 내적 역량인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자립준비(전미숙, 김형모, 2017)와 사회적 탄력성(이상준, 2014)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행동적 요인인 기본심리욕구와 성인애착, 자아분화, 대인관계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관련 변인들이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 성인애착과 기본심리욕구의 관계

성인애착과 기본심리욕구는 본능적 욕구 충족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성인애착은 친밀감이라는 애착의 욕구를,

기본심리욕구는 자율성과 유능성, 관계성이라는 심리적 욕구의 충족을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애착 이론에서 안정된 애착은 자녀의 욕구와 신호, 행동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민감한 부모의 반응을 통해 형성된다(Ainsworth, 1989; Bowlby, 1980). 이때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는 자녀의 자율성과 유능성을 지지하게 되고, 사랑이 바탕이 된 양육을 통하여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한다(La Guardia, Ryan, Couchman & Deci, 2000). 다시 말하면 애착 대상과의 안정된 관계 형성은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토대가 되어 개인의 적응 기능과 행동 양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애착 대상과의 불안정한 애착 경험은 기본심리욕구의 결핍으로 이어져 부정적 심리 기제와 부적응적인 행동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애착과 기본심리욕구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도 두 변인이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La Guardia 등(2000)의 연구에서 안정 애착은 기본심리욕구 만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Wei 등(2005)의 연구에서 불안정한 성인애착의 두 차원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기본심리욕구 만족에 부적응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수행되어왔다. 불안정한 성인애착 유형은 안정애착 유형보다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만족도가 모두 낮았고(정지선, 2016), 대학생의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기본심리욕구 전체 및 하위요인들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성민, 2019).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황아람(2010)의 연구에서 애착은 기본심리욕구를 거쳐 심리적안녕감에 영향을 미쳤는데, 애착불안은 부분매개 효과가, 애착회피는 완전매개 효과가 발견되어 애착 유형에 따른 보였다.

나아가 성인애착의 두 차원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서로 다른 내적 표상 체계에 의해 기본심리욕구 만족에 각각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존재한다. 성인애착과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는 애착불안과 심리적 소진 사이를 부분매개 하는 반면, 애착회피는 두 변인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수, 이희경, 2011). 또한 애착불안은 기본심리욕구와 경험적 회피를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사회불안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쳤고, 애착회피의 경우에는 직, 간접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조영미, 이

회경, 2013). 즉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과 관련된 애착불안은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부정적인 타인 표상과 관련된 애착회피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단절하려는 성향으로 인해 관계성 욕구에 결핍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성인애착이 기본심리욕구에 미치는 영향에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두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각 차원에 따른 경로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관계

Bowen(1976)의 자아분화 이론에 따르면 자아가 분화되지 못한 사람은 자신과 외부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각의 결여로 정서와 인지의 구별이 어렵고, 본능에 따라 충동적으로 반응하며,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해 역기능적인 행동을 하기 쉽다. 또한 Deci와 Ryan(2000)의 기본심리욕구 이론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어야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전제하였다. 이에 따라 자아분화 수준은 개인의 자율성과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으며, 이는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일수록 스스로의 신념에 의해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 깊은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음을 뜻한다. 자아분화는 관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승인과 수용을 구하기 위해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의존을 갈구하지 않으나(Hill & Moore, 2011),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중요한 타인에게 무작정 맞추려고 하고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는 경향을 보인다(윤성민, 2014).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관련성을 살펴본 실증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 간에 정적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김남희, 김해란, 2020; 백미희, 2018; 윤성민, 2017; 이지홍, 2016). 가정 요인과 관련된 연구로 윤성민(2014)에 따르면, 성장기 부모의 무관심하고 거부적이었던 부모의 양육태도는 성인이 된 후에 기본심리욕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자아분화를 거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모로부터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애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미분화된 자아를 갖기 쉽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더 어려워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분화는 기본심리욕구를 매개하여 심리적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가족구성원과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보다 이성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를 더 잘 충족하고,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또한 높아지게 됨을 시사한다(윤성민, 2017).

다음으로 대인 간 요인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이지홍(2016)의 연구에서 자아분화는 기본심리욕구를 거쳐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에 분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기본심리욕구의 만족이 증가하여 관계중독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남희와 김해란(2020)의 연구에서도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은 자아분화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었으며, 이는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 만족 또한 증가하여 대인관계문제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즉 높은 자아분화 수준은 자율성과 유능감, 관계성의 욕구를 충족시켜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더 잘 발휘됨으로써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이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고, 두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라. 기본심리욕구와 대인관계능력의 관계

Gagne(2003)에 따르면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심리적 기제가 촉진되어 타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결과적으로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높아지면 관계 내에서 위축되거나 소외되기 보다 자신감이 향상되어 기꺼이 타인을 돌보고 지지할 수 있게 된다(이민화, 2010). 반면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기능 상실, 자기 성장 정체, 정신건강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궁극적으

로 개인의 성격과 인지구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Deci & Ryan, 2002). 이러한 경향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의 접촉을 방해하고, 개인의 안녕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여 다양한 관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기본심리욕구와 대인관계의 관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보면, 적응적 기제로써 대인관계능력에 초점을 둔 연구는 미비하였고, 부적응적인 측면에서 기본심리욕구와 대인관계문제와의 부적 관계를 보고한 연구가 많았다. 대학생의 불안정한 성인애착은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낮추어 대인관계문제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동환, 2020). 기본심리욕구는 대인관계문제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그중 자율성과의 상관이 가장 높았다(박지아, 김완일, 2017). 이는 자율성이 높을수록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대인관계문제를 더 적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남희와 김해란(2020)은 기본심리욕구 하위요인인 자율성과 관계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부적인 영향을, 유능성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바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경아(2015)의 연구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은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매개하여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표현이 양가적일 경우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고 철회되는 대인관계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아짐을 시사한다. 김애경(2018)의 연구를 보면 기본심리욕구의 자율성과 유능성은 청소년의 대인관계유능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관계성의 경우에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하였다. 한편 한소영과 신희천(2014)은 기본심리욕구의 세 하위요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은 사회문화적 맥락과 대상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의 하위요인에 초점을 두기 보다 전체 요인의 상호작용이 가정 밖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 한다. 나아가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를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가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여 각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고려한 순차적 매개 모형을 설정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전국 16개 시도 52개소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29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국 110여개소의 청소년쉼터(단기, 중장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담당자에게 연구 취지 및 조사 방법을 설명한 후, 설문 참여에 동의한 연구대상자 중 아동기 가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예, 1인 가정 청소년 제외)에 한해 설문이 이루어졌다.

설문 조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혼합한 방식으로 6주 간 진행했다. 1차 조사는 2021년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주 간 등기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고, 2차 조사는 2021년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2주 간 온라인 구글폼(Google Forms)을 통해 응답을 수집하였다. 1차 조사 237부, 2차 조사 75부를 포함한 총 312부의 설문이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16부를 제외하고 29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했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Ⅲ-1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 296명 가운데 성별 분포는 남자 155명(52.4%), 여자 141명(47.6%)으로 남자 청소년의 비율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약간 높았다.

둘째, 연령의 경우에는 만 15세~18세 149명(50.3%), 만 19세~24세 147명(49.7%)으로 중기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셋째, 학업 상황은 고등학교 재학 103명(34.8%), 고등학교 졸업 80명(27.0%)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중학교 재학 52명(17.6%), 대학교 재학 33명(11.1%), 대학교 졸업 5명(1.7%), 중학교 졸업 4명(1.4%)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기타 응답자는 19명(6.4%)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거주 지역을 보면 서울·경기·인천·강원이 126명(42.6%)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광주·전라·제주 67명(22.6%), 부산·대구·울산·경상 54명(18.2%), 대전·충청 49명(16.6%)으로 수도권과 강원을 제외한 전국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다섯째, 가정 밖 생활 기간은 1년 미만 129명(43.6%). 1년 이상~3년 미만 98명(33.1)으로 전체 응답자의 76.7%가 3년 미만의 범위에 속하였다. 이 밖에도 3년 이상~5년 미만 34명(11.5%), 5년 이상 31명(10.4%), 무응답자는 4명(1.4%)으로 조사되었다.

여섯째, 일(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79명(60.5%)으로, 경험이 없는 청소년 117명(39.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Ⅲ-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296)

구분		빈도(명)	구성 비율(%)
성별	남	155	52.4
	여	141	47.6
연령	만 15~18세	149	50.3
	만 19~24세	147	49.7
학업 상황	중학교 재학	52	17.6
	중학교 졸업	4	1.4
	고등학교 재학	103	34.8
	고등학교 졸업	80	27.0
	대학교 재학	33	11.1
	대학교 졸업	5	1.7
	기타(학교 밖 청소년 외)	19	6.4
거주 지역	서울·경기·인천·강원	126	42.6
	대전·충청	49	16.6
	부산·대구·울산·경상	54	18.2
	광주·전라·제주	67	22.6
가정 밖 생활 기간	1년 미만	129	43.6
	1년 이상~3년 미만	98	33.1
	3년 이상~5년 미만	34	11.5
	5년 이상	31	10.4
	무응답	4	1.4
일(아르바이트) 경험	유	179	60.5
	무	117	39.5

2. 측정도구

가. 성인애착 척도

Brennan과 Clark, Shaver(1998)가 개발한 친밀관계경험검사(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 ECR)를 Fraley, Waller과 Brennan(2000)이 개정한 후 김성현(2004)이 번안, 타당화한 친밀관계경험검사 개정판(Experience in Close Relationship - Revised, ECR-R) 척도를 사용했다.

성인애착 척도는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두 차원으로 나뉘며, 각각 18문항씩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애착불안은 타인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를, 애착회피는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의 정도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89, .85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애착불안 .93, 애착회피 .89로 나타났다.

표Ⅲ-2 성인애착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296)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애착불안	2, 6, 8*, 10, 12, 13, 14, 15, 17, 20, 21, 22, 23*, 24, 25, 26, 31, 36	18	.93
애착회피	1, 3*, 4, 5*, 7*, 9*, 11, 16, 18*, 19, 27*, 28*, 29*, 30*, 32*, 33*, 34*, 35	18	.89
전체		36	.93

*역채점 문항

나. 대인관계능력 척도

문선모(1980)가 번안한 Schlein과 Guerney(1977)의 관계성 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를 박영호(2006)가 요인분석을 통해 4요인 23문항으로 구성하고, 박현지(2014)가 용어 수정한 척도로 재구성한 정천경(2019)의 척도를 사용했다.

본 척도는 타인과의 관계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만족감(5문항), 감수성(타인에 대한 느낌의 정도)과 이해성(타인의 느낌을 이해하는 난이도와 타인과의 대화에서 느끼는 난이도의 정도, 이성적인 판단과 해석의 포용 정도, 나에게 대한 타인의 부정적 사고를 건설적으로 대하는 정도, 미래에 맺고 싶은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정도) 및 민감성(의견 불일치를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는 정도)을 포함하는 감정이해(7문항), 원하는 것의 의미를 전달하고 수용하는 능력인 의사소통(6문항), 자신의 내면 및 행동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개방성(5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영호(2006)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표Ⅲ-3 대인관계능력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296)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만족감	1, 2, 3, 4, 5	5	.79
감정이해	6, 7, 8, 10, 12, 13, 23	7	.73
의사소통	9, 11, 14, 15, 16, 17	6	.80
개방성	18, 19, 20, 21, 22	5	.80
전체		23	.92

다. 자아분화 척도

Bowen(1976)의 자아분화척도(Diferentiation of Self Scale)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수정한 제석봉(1989)의 자아분화 척도를 사용했다.

본 척도는 인지 체계와 정서 체계의 분화를 나타내는 인지정서(7문항), 위장된 가아(pseudo self)가 아닌 진아(soild self)의 발달을 의미하는 자아통합(6문항),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이 자녀에게 전가되는 가족투사(6문항),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미해결된 감정을 반영하는 정서적 단절(6문항),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위기를 대처하는 가족퇴행(11문항)의 5가지 하위요인을 포함한 총 3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의 합이 클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제석봉(1989)의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표Ⅲ-4 자아분화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296)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인지정서	1*, 2*, 3, 4*, 5*, 6*, 7*	7	.74
자아통합	8, 9, 10, 11*, 12*, 13	6	.67
가족투사	14*, 15*, 16*, 17*, 18*, 19*	6	.72
정서적단절	20, 21*, 22*, 23*, 24*, 25*	6	.80
가족퇴행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1	.88
전체		36	.85

*역채점 문항

라. 기본심리욕구 척도

Deci와 Ryan(2002, 2004)가 개발한 기본심리적 욕구 척도(Basic Psychological Needs Scale)를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 척도를 사용했다.

총 18문항이며, 자신의 행동을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욕구와 관련된 자율성(6문항),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을 효율적이라고 느끼는 욕구와 관련된 유능성(6문항), 타인과 의미있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된 관계성(6문항)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모든 설문 항목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범위를 갖는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기본심리 욕구 만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명희, 김아영(2008)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표Ⅲ-5 기본심리욕구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N=296)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자율성	1*, 2*, 3*, 4, 5, 6*	6	.76
유능성	7, 8, 9, 10, 11, 12	6	.84
관계성	13, 14*, 15, 16, 17, 18	6	.80
전체		18	.87

*역채점 문항

마.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성별, 나이, 지역, 학업 상황, 가정 밖 생활 기간, 일(아르바이트) 유무 등을 추가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가정 밖 청소년의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8.0과 PROCESS Macro 4.0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 자아분화, 기본심리욕구, 대인관계능력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여 각 변인의 정규성 충족을 살펴보았다.

셋째,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6번 모형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표본 수를 10,000번 반복 추출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간접효과와 결과가 유의한 지 확인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은 정규 분포에 대한 가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표본에도 효과적인 검증이 가능한 분석 방법(Hayes, 2013)이다. 또한 두 개 이상의 매개 변인을 동시에 투입할 경우 각각의 개별 매개 모형과 복잡한 다중매개 모형을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주요 변인의 평균(M), 표준편차(SD), 왜도, 첨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IV-1 과 같다.

주요 변인의 평균을 살펴보면 애착불안 3.82, 애착회피 3.98, 자아분화 2.30, 기본심리욕구 3.20, 대인관계능력 3.26으로 나타났다. 정규성 검정을 위해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을 분석한 결과, 왜도 $-0.04 \sim .35$, 첨도 $-0.08 \sim .68$ 의 범위를 보였다. 이는 Kline(2011)이 제시한 왜도 절대값 3미만, 첨도 절대값 8미만의 정규 분포 기준을 충족하므로 모든 변인에서 정규성 가정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IV-1 주요 변인 간 기술통계 (N=296)

변인		M	SD	왜도	첨도
성인애착	애착불안	3.82	1.20	-.04	-.58
	애착회피	3.98	1.04	-.09	-.21
	전체	3.90	.96	-.18	.21
자아분화	전체	2.30	.40	.35	.68
기본 심리욕구	자율성	3.16	.81	.05	-.37
	유능성	3.07	.83	.07	-.08
	관계성	3.37	.76	-.14	.09
	전체	3.20	.63	.25	.43
대인관계능력	전체	3.26	.66	.10	-.41

2.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 자아분화, 기본심리욕구, 대인관계능력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IV-2 와 같다.

전체적으로 모든 주요 변인 간 상관은 유의했다. 성인애착의 하위요인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다른 변인들과 부적상관이 나타난 반면, 다른 변인 간에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애착불안은 자아분화($r=-.40, p<.001$), 기본심리욕구($r=-.48, p<.001$), 대인관계능력($r=-.40, p<.001$)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애착회피도 자아분화($r=-.33, p<.001$), 기본심리욕구($r=-.64, p<.001$), 대인관계능력($r=-.65, p<.001$)과 부적상관이 있었다. 자아분화의 경우, 기본심리욕구($r=.40, p<.001$), 대인관계능력($r=.34, p<.001$)과 정적상관이 유의하였다. 기본심리욕구는 대인관계능력($r=.75, p<.001$)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2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N=296)

	1	1-1	1-2	2	3	3-1	3-2	3-3	4
1. 성인애착	-								
1-1. 애착불안	.88***	-							
1-2. 애착회피	.83***	.46***	-						
2. 자아분화	-.43***	-.40***	-.33***	-					
3. 기본심리욕구	-.65***	-.48***	-.64***	.40***	-				
3-1. 자율성	-.57***	-.51***	-.45***	.37***	.79***	-			
3-2. 유능성	-.44***	-.31***	-.45***	.36***	.81***	.46***	-		
3-3. 관계성	-.54***	-.31***	-.62***	.20**	.76***	.39***	.43***	-	
4. 대인관계능력	-.60***	-.40***	-.65***	.34***	.75***	.48***	.65***	.65***	-

** $p<.01$, *** $p<.001$

3. 애착불안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 6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인애착은 Brennan 등(1998)의 구분에 따라 애착불안과 애착회피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표준화 계수(β)보다 비표준화 계수(B)가 자료를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Hayes(2013)의 제안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비표준화계수(B)를 사용하였다.

가. 변인 간의 영향 관계 검증

애착불안, 자아분화, 기본심리욕구, 대인관계능력 간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순차적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IV-3, 그림IV-1 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능력(종속변인)에 대한 애착불안(독립변인)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53.892, p<.001$), 모형의 설명력은 15.5%로 나타났다($R^2=.155$). 애착불안은 대인관계능력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216, p<.001$). 즉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분화(제1 매개변인)에 대한 애착불안(독립변인)의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56.212, p<.001$), 모형의 설명력은 16.1%였다($R^2=.161$). 애착불안은 자아분화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B=-.132, p<.001$). 즉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본심리욕구(제2 매개변인)에 대한 애착불안(독립변인)과 자아분화(제1 매개변인)의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55.737, p<.001$), 모형의 설명력은 27.6%였다($R^2=.276$). 애착불안은 기본심리욕구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B=-.202, p<.001$), 자아분화는 기본심리욕구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377, p<.001$). 즉 애착불안이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기본심리욕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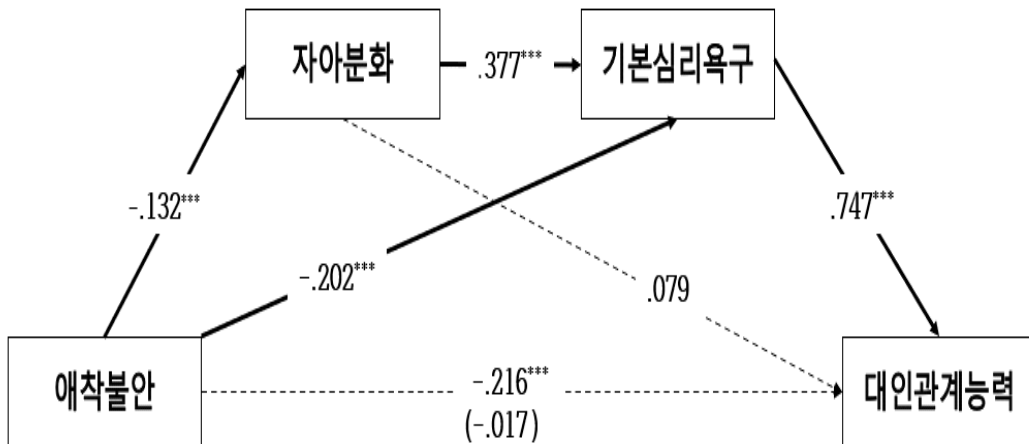
넷째, 대인관계능력(종속변인)에 대한 애착불안(독립변인), 자아분화(제1 매개변인), 기본심리욕구(제2 매개변인)의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했고($F=127.768$, $p<.001$), 모형의 설명력은 56.8%였다($R^2=.568$). 애착불안($B=-.017$, $p>.05$)과 자아분화($B=.079$, $p>.05$)는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기본심리욕구($B=.747$, $p<.001$)는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기본심리욕구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은 높지만, 애착불안과 자아분화는 더 이상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자아분화(제1 매개변인)와 기본심리욕구(제2 매개변인)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를 투입한 후 애착불안(독립변인)이 대인관계능력(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동시에 직접효과의 유의도 또한 상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B=-.216$, $p<.001 \rightarrow B=-.017$, $p>.05$). 따라서 애착불안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가 순차적으로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3 애착불안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N=296)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t	F	R ²
애착불안	대인관계능력	-.216	.029	-7.341***	53.892***	.155
애착불안	자아분화	-.132	.018	-7.498***	56.212***	.161
애착불안	기본심리욕구	-.202	.029	-7.072***	55.737***	.276
자아분화		.377	.087	4.349***		
애착불안		-.017	.025	-.687		
자아분화	대인관계능력	.079	.072	1.096	127.768***	.568
기본심리욕구		.747	.047	15.875***		

*** $p<.001$



그림IV-1 애착불안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모형 경로계수
(괄호 안은 매개변인을 통제했을 때의 비표준화계수임)

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가정 밖 청소년의 애착불안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10,000회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시행한 결과는 표IV-4 와 같다. 부트스트래핑은 동일한 표본을 반복 추출하여 간접효과의 표본오차를 재추정하는 방법으로,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LLCI)과 상한값(ULCI)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Shrout & Bolger, 2002).

먼저 가정 밖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이들의 합인 총효과를 분석해보면, 애착불안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총효과($B=-.216$, $CI=-.274\sim-.158$)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애착불안이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매개변인을 순차적으로 거쳐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총간접효과($B=-.199$, $CI=-.251\sim-.147$)도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애착불안이 매개변인을 거치지 않고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B=-.017$, $CI=-.066\sim.032$)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므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매개효과의 검증 결과, 애착불안이 자아분화를 거쳐 대인관계능력으로 가는 경로의 개별 매개효과($B=-.010$, $CI=-.031\sim.013$)는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여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애착불안이 기본심리욕구를 거쳐 대인관계능력으로 가는 경로의 개별 매개효과($B=-.151$, $CI=-.204\sim-.101$)와 애착불안이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를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대인관계능력으로 가는 경로의 순차적 매개효과($B=-.037$, $CI=-.062\sim-.017$)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애착불안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개별 매개효과 및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즉, 애착불안은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애착불안이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감소시켜 대인관계능력이 낮아지거나, 애착불안으로 낮아진 자아분화 수준이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낮추어 대인관계능력이 저하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표IV-4 애착불안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N=296$)

구분	경로	<i>B</i>	<i>SE</i>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애착불안 → 대인관계능력	-.216	.029	-.274	-.158
직접효과	애착불안 → 대인관계능력	-.017	.025	-.066	.032
	애착불안 → 자아분화 → 대인관계능력	-.010	.011	-.031	.013
	애착불안 → 기본심리욕구 → 대인관계능력	-.151	.027	-.204	-.101
	애착불안 → 자아분화 → 기본심리욕구 → 대인관계능력	-.037	.012	-.062	-.017
	총간접효과		-.199	.027	-.251

LLCI =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ULCI =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4. 애착회피와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가. 변인 간의 영향 관계 검증

애착회피, 자아분화, 기본심리욕구, 대인관계능력 간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순차적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IV-5, 그림IV-2 와 같다.

첫째, 대인관계능력(종속변인)에 대한 애착회피(독립변인)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217.867$, $p<.001$), 모형의 설명력은 42.6%였다($R^2=.426$). 애착회피는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B=-.414$, $p<.001$). 즉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분화(제1 매개변인)에 대한 애착회피(독립변인)의 회귀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36.418$, $p<.001$), 모형의 설명력은 11.0%였다($R^2=.110$). 애착회피는 자아분화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127$, $p<.001$). 즉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본심리욕구(제2 매개변인)에 대한 애착회피(독립변인)와 자아분화(제1 매개변인)의 회귀모형 또한 유의했으며($F=118.825$, $p<.001$), 설명력은 44.8%였다($R^2=.448$). 애착회피는 기본심리욕구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352$, $p<.001$), 자아분화는 기본심리욕구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317$, $p<.001$). 즉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기본심리욕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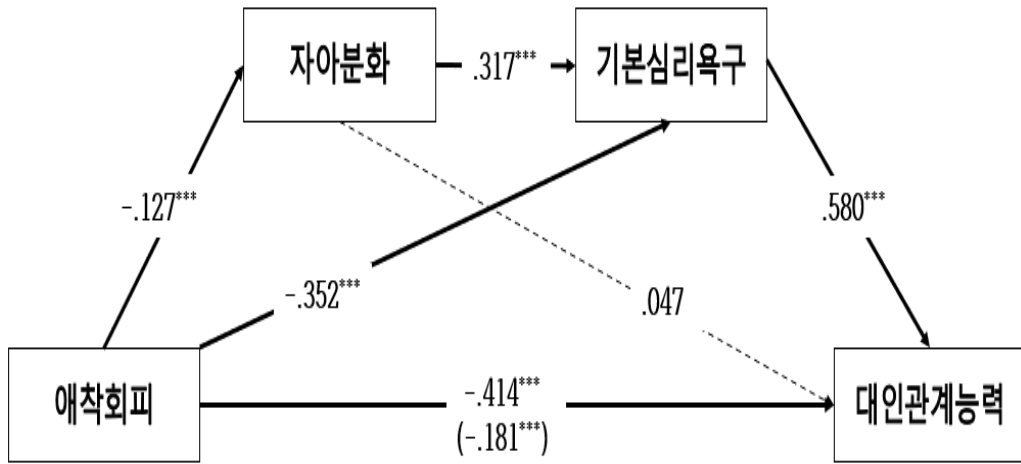
넷째, 대인관계능력(종속변인)에 대한 애착회피(독립변인), 자아분화(제1 매개변인), 기본심리욕구(제2 매개변인)의 회귀모형도 유의했고($F=154.842$, $p<.001$), 설명력은 61.4%였다($R^2=.614$). 애착회피는 대인관계능력에 부적으로 유의하였고($B=-.181$, $p<.001$), 기본심리욕구는 대인관계능력에 정적으로 유의하였다($B=.580$, $p<.001$). 반면 자아분화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B=.047$, $p>.05$). 즉 애착회피가 높을수록, 기본심리욕구가 낮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은 낮지만, 자아분화는 대인관계능력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자아분화(제1 매개변인)와 기본심리욕구(제2 매개변인)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를 투입한 후 애착회피(독립변인)가 대인관계능력(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직접효과도 유의함을 알 수 있다($B=-.414, p<.001 \rightarrow B=-.181, p<.001$). 따라서 애착회피와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가 순차적으로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5 애착회피와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N=296)

독립변인	종속변인	B	SE	t	F	R ²
애착회피	대인관계능력	-.414	.028	-14.760***	217.867***	.426
애착회피	자아분화	-.127	.021	-6.035***	36.418***	.110
애착회피	기본심리욕구	-.352	.028	-12.531***	118.825***	.448
자아분화		.317	.074	4.310***		
애착회피		-.181	.030	-5.971***		
자아분화	대인관계능력	.047	.066	.703	154.842***	.614
기본심리욕구		.580	.051	11.385***		

*** $p<.001$



그림IV-2 애착회피와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모형 경로계수
(괄호 안은 매개변인을 통제했을 때의 비표준화계수임)

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애착회피와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10,000회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시행한 결과는 표IV-6 과 같다.

먼저 가정 밖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 애착회피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총효과($B=-.414$, $CI=-.469\sim-.359$)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애착회피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B=-.181$, $CI=-.241\sim-.121$)와 애착회피가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매개변인을 순차적으로 거쳐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총간접효과($B=-.233$, $CI=-.287\sim-.179$)도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매개효과의 검증 결과, 애착회피가 자아분화를 거쳐 대인관계능력으로 가는 경로의 개별 매개효과($B=-.006$, $CI=-.026\sim.016$)는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므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애착회피가 기본심리욕구를 거쳐 대인관계능력으로

가는 경로의 개별 매개효과($B=-.204$, $CI=-.260\sim-.150$)와 애착회피가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를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대인관계능력으로 가는 경로의 순차적 매개효과($B=-.023$, $CI=-.041\sim-.010$)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애착회피와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개별 매개효과 및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즉 애착회피는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애착회피가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감소시켜 대인관계능력이 낮아지거나, 애착회피로 인해 낮아진 자아분화 수준이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낮추어 대인관계능력이 저하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표IV-6 애착회피와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간접효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N=296)

구분	경로	B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애착회피 → 대인관계능력	-.414	.028	-.469	-.359
직접효과	애착회피 → 대인관계능력	-.181	.030	-.241	-.121
	애착회피 → 자아분화 → 대인관계능력	-.006	.010	-.026	.016
	애착회피 → 기본심리욕구 → 대인관계능력	-.204	.028	-.260	-.150
	애착회피 → 자아분화 → 기본심리욕구 → 대인관계능력	-.023	.008	-.041	-.010
	총간접효과		-.233	.028	-.287

LLCI =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ULCI =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V. 논의 및 결론

1.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정, 사회적 요인들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전국 16개 시도 52개소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296명이며, 온·오프라인 조사를 혼합한 방식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8.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상관 분석을 실시했고, PROCESS Macro 4.0 model 6을 활용하여 순차적 매개효과를 분석했다. 또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한 논의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인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 자아분화, 기본심리욕구, 대인관계능력 간 상관은 모두 유의하였다. 먼저 성인애착의 두 차원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자아분화, 기본심리욕구, 대인관계능력과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이 높을수록 자아분화(강솔비, 2020; 임선화, 2015), 기본심리욕구(김형주, 2013; 윤성민, 2019; 이채리, 2017), 대인관계능력(김민주, 오은주, 2021; 김종운, 김남희, 2019; 정지윤, 2014)이 낮아진다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 즉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거절을 두려워하는 애착불안과 친밀한 관계를 꺼려하는 애착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독립된 자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자율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우며, 대인관계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자아분화는 기본심리욕구, 대인관계능력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기본심리욕구는 대인관계능력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기본심리욕구(김남희, 김해란, 2020; 윤성민, 2017; 이대인, 이자영, 2021), 대인관계능력(김보미, 김영근, 2022; 신소림, 2015)이 낮아진다는 연구와, 기본심리욕구가 낮을수록 대인관계능력(안성순, 2017; 허수연, 2021)이 낮아진다는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일수록 감정에 치우치고 타인과 지나치게 밀착 또는 유리되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데 방해받기 쉽고, 대인관계에서도 단절과 고립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삶의 필수적인 영양분이자 성장 욕구인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대인관계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모두 자아분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자아분화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애착불안은 대인관계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애착회피는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이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낮아진다는 연구(성순이, 김해란, 2018; 이은선, 2020)와 애착불안보다 애착회피가 대인관계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강수진, 최영희, 2011; 정성한, 김완일, 2016)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나,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아영아, 이명희, 2016)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매개변인으로 함께 투입된 기본심리욕구와의 상대적 영향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영아와 이명희(2016)의 연구에서 자아분화는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으나, 이는 성인애착을 불안과 회피의 독립 차원으로 나누지 않고 단일 차원으로 다루어 자아분화의 단순 매개효과만을 살펴본 결과이다. 김보미와 김영근(2022)의 연구에서 자아분화는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를 단독으로 매개하지 않았고, 거부민감성과의 순차적 매개를 통해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분화와 함께 또 다른 매개변인이 투입될 경우 자아분화의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아분화는 감성과 이성,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여 원가족으로부터 개별화를 이루고

독립된 자아로 기능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그러나 기본심리욕구는 타인과 연결감을 느끼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가는 심리적 자원이라는 점에서 기본심리욕구가 자아분화보다 사회적 상황에서의 대처 기술인 대인관계능력을 더 잘 예측할 것이라는 가정이 가능하다.

셋째,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는 애착불안과 대인관계능력을 완전 매개, 애착회피와 대인관계능력을 부분 매개하였다. 즉 애착불안은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본심리욕구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애착회피는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기본심리욕구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이 증가할수록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낮아진다는 연구(윤성민, 2019; 이혜수, 이희경, 2011; 조영미, 이희경, 2013; 조영희, 정남운, 2016)와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될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아진다는 연구(안성순, 2017; 이민화, 2010; 허수연, 202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더불어 애착불안보다 애착회피가 대인관계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록현, 2018; 최인선, 주은지, 2021)의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기본심리욕구는 가정 밖 청소년의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대인관계능력을 매개하는 매우 강력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불안정한 성인애착으로 애착 대상에게 과도하게 밀착하려고 하거나 거리를 두는 경향이 높을수록 심리적 기본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내적동기에 따른 자발적 행동에 제약이 따르고 대인관계에도 역기능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본심리욕구를 거쳐 대인관계능력에 이르는 과정에서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각각 다른 경로를 나타낸 이유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불안과 회피 차원에 따라 상이한 내적작동모델이 활성화되는 대처 기제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애착불안 유형은 부정적인 자기 표상과 관련되므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에게 더 몰입함으로써 관계를 지속해간다. 반면 부정적인 타인표상과 관련된 애착회피 유형은 애착불안 유형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축소하여 받아들이거나, 대인관계 상황 자체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대인관계능력에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넷째,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는 순차적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모두 자아분화 자체만으로는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의 순차적인 매개를 통해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애착불안은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를 경유하는 간접효과만이 유의한 순차적 완전매개 효과를 보였다. 이는 애착불안으로 대인관계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애착불안이 자아분화 수준을 낮추고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감소시켜 대인관계능력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애착회피의 경우에는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직접 효과뿐만 아니라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를 경유하는 간접효과도 유의한 순차적 부분매개 효과를 보였다. 이는 애착회피로 인해 대인관계능력이 저하되기도 하지만, 애착회피가 자아분화 수준을 낮추고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감소시켜 대인관계능력이 낮아지는 두 경로가 모두 유의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이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낮아진다는 연구(성순이, 김해란, 2018; 아영아, 이명희, 2016), 자아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낮아진다는 연구(김남희, 김해란, 2020; 윤성민, 2017),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낮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낮아진다는 연구(김동환, 2020; 정경아, 2015), 애착회피가 애착불안보다 대인관계능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주혜, 조영아, 2014; 황윤정, 2016)의 결과를 통합하여 확장한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이 높을수록 자아분화를 잘 이루지 못하고 기본심리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애착불안 유형의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우 내적동기에 따라 주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본심리욕구를 충족시켜 긍정적인 대인관계의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또는 건강한 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인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사고와 정서를 균형적으로 조절하여 삶의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단계적 개입이 필요하다.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해하는 애착회피 유형의 가정 밖 청소년들은 대인관계 자체를 거부하려는 방어적 기제로 인한 심리적 부적응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원가족으로부터 미분화된 상태를 벗어나 스

스로의 정체성을 찾도록 독려하고, 관계성의 욕구를 회복함과 동시에 자율성과 유능성의 욕구 충족을 활성화하여, 보다 확장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대처전략을 수립, 활용하는 데 힘써야 한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 밖 청소년의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은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애착불안은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기본심리욕구를 완전매개로 하거나,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를 순차적으로 완전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애착회피는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기본심리욕구를 부분매개로 하거나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를 순차적으로 부분매개로 하여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가정 밖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인애착 차원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직접 다루거나,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 수준을 단계별로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일탈과 비행을 일으키는 문제청소년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의 보호 대상자에 머물러 있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보다 주체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사회 적응 과정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의 구조적, 기능적 결손에 의해 충분한 ‘자립’의 준비 없이 이른 ‘분리’를 경험한 가정 밖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데 유용한 학술적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변인, 개인 변인, 사회적 변인을 살펴보고, 각 변인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 개입 시 먼저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현재의 관계 패턴으로 전이된 성인애착 유형을 파악한 후 원가족으로부터 건강하게 정서적 분리를 이룰 수 있게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고, 자신의 내적

동기에 따라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기본심리욕구 만족을 촉진 시켜,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야한다.

셋째, 성인애착의 두 차원인 애착불안과 애착회피가 각각 다른 경로로 가정 밖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했으며, 특히 기본심리욕구의 매개 역할이 대인관계능력을 높이는 매우 강력한 요인임을 새롭게 밝혔다. 애착과 분화는 개인의 노력으로 쉽게 변화하기 어려운 특성 변인의 성격을 지닌다. 반면 개인 내적 변인인 기본심리욕구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심리적 영양분이자 성장 욕구로써 상담 장면에서 비교적 쉽게, 실제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천적 개입의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밖 청소년의 위기는 개인이 아닌 사회환경적 위기의 반영이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을 문제적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 건강한 성장발달의 측면에서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는 당위적 과제를 함축한다.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밖에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은 경제, 문화적 사각지대에서 낙인과 배제를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및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대상자 구성에 있어 표집이 가능한 시설 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므로, 가정 밖 청소년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은 쉼터의 보호를 받는 청소년 이외에도 친구와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청소년도 포함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생활환경을 고려한 비교연구를 통해 가출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와 특성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성인애착, 자아분화, 기본심리욕구, 대인관계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보고식 설문 방법을 채택했다. 자기보고식 설문은 개인의 주관성에 의해 결과가 도출되므로 연구대상자의 실제 상을 객관적

으로 반영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바람직성에 영향을 받아 편향되거나 왜곡된 응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의견, 혹은 행동 관찰이 함께 진행되어 분석 결과를 보다 객관화할 수 있는 연구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가정 밖 청소년의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가 순차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가정 밖 청소년의 내적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사회적 적응 기제를 탐색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 결과이기는 하나, 연구 결과의 실제 적용에 있어 사회적 지지를 포함한 외적 자원의 개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자아분화와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단계별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전문상담인력과 신뢰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가정 밖 청소년이 독립심과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각적인 개입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본 연구는 전국의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코로나19라는 제한된 상황으로 인해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자료처리에 있어 정규 분포의 가정에서 자유롭고 비교적 적은 크기의 표본에도 효과적인 검증이 가능한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 각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른다. 특히 기본심리욕구의 하위변인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은 상호관련성과 고유한 특수성을 지니며 본 연구에서 강력한 매개 역할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확장된 표본 수를 활용하여 하위변인별 각각의 개별적 영향을 구조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참 고 문 헌

- 강솔비(2020). 불안정 성인애착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수진, 최영희(2011).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 정서조절양식과
사회불안을 매개변인으로. *人間發達研究*, 18(3), 53-68.
- 고미애, 홍민하, 김영은, 하주원, 이상민, 김현수(2016). 가출청소년에서 우울증상과
애착 및 중독문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7(3), 181-187.
- 고민좌(2000). '특별교육생'의 자아분화수준과 대인간 갈등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민좌(2017). 해체가족 위기여자청소년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결핍욕구 해결
프로그램 개발 연구.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진(2013).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 가천대학교 보건
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희, 김해란(2020). 대학생의 자기분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기본심
리욕구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8(4), 15-26.
- 김동환(2020). 불안정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과
진정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록현(2018). 불안정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주, 오은주(2021).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식 명확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 615-639.
- 김보미, 김영근(2022). 부모화 경험이 초기성인기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
아분화와 거부민감성의 순차매개효과. *복지상담교육연구*, 11(1), 253-275.
- 김성령(2016).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자기
개념과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현(2004). **친밀관계 경험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 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연(2020). **성인에착과 직무소진의 관계 : 기본심리적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아영(2010). **자기결정성이론과 현장 적용 연구**. *教育心理研究*, 24(3), 583-609.
- 김애경(2018).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착과 대인관계지향성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6(4), 119-130.
- 김연주(2020). **가출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희망의 매개효과**.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지(1995). **가출청소년의 삶과 문화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지, 유설희, 최홍일, 이민희, 김진호(202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연구보고 21-R1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옥수(2020). **가출청소년의 다중폭력피해경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사회적 지지에 따른 내재화·외현화 문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녕, 서보람(2018).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진로태도성숙이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 일시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2), 197-207.
- 김은영, 송민경(2009). **단기쉼터이용 가출청소년의 귀가 결정요인에 관한 생존분석**. *청소년학연구*, 16(1), 343-370.
- 김은정, 백혜정, 김희진(2019).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 모색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0(2), 113-144.
- 김은주(2007). **부모자녀관계와 자기결정성 요인들이 대학신입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1(3), 539-555.
- 김은주(2012).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자기통제력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주, 도승이(2009). 협동학습에서 학습자의 유능감 및 관계성 욕구와 내재동기 및 수업 참여의 관계분석. **교육심리연구**, 23(1), 181-196.
- 김인영(2016). **대학생의 부모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자아분화와 정서 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 김준범, 장용언, 한기주(2016). 가출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학교폭력의 중복피해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2), 159-186.
- 김재엽, 성신명, 박하연, 한기주(2018).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가출청소년의 반복가출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9(1), 239-263.
- 김재희, 주은선(2001). 부적응 청소년집단의 애착유형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107-125.
- 김중운, 김남희(2019).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인지적 마음챙김과 대인존재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0), 529-551.
- 김지혜, 안치민(2006). 가출청소년의 학업중단 영향 요인과 대책. **한국청소년연구**, 17(2), 133-157.
- 김형주(2013). **성인애착과 결혼만족의 관계: 기본심리적욕구 만족과 성적친밀감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숙(2013).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자아탄력성이 대인간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진, 백혜정, 김은정, 이미영(2018).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연구보고 18-R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남미경, 이경남(2009).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가정과삶의질연구**, 27(4), 41-54.
- 남상철, 유영달(2007). 부모와 자녀의 양육태도 지각 및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51-75
- 노혜련, 김형태, 이종익(2005). 가출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6(1), 5-34.
- 문선모(1980). 인간관계훈련 집단상담의 효과에 대한 일연구. **경상대논문집**, 19, 195-204.

- 박성은(2015).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애착이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호(2006). **한국적 부모-자녀관계가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 부자유친성정, 애착, 우리의식, 자아분화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하, 권세원(2010).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3), 201-231.
- 박인숙, 김은하(2018). 성인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마음챙김과 영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1), 173-193.
- 박지아, 김완일(2017).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청소년연구**, 24(6), 127-153.
- 박현지(2014). **초등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강화 프로그램이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및 학교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달샘(2016). **성인초기 자기분화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성인애착과 공감의 매개효과**.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미예, 이은희(2009).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 및 우울/불안 간의 관계 :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0(1), 85-112.
- 배정환, 이운호, 심혜인, 이정민(2013).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20(2), 83-112.
- 백미희(2019). **자아분화가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정서표현 양가성과 기본심리적 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광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보람, 김윤나(2013). 가출팸 청소년의 생활경험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19-48.
- 성순이, 김해란(2018). 외상경험자의 성인애착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복지상담교육연구**, 7(1), 305-329.
- 소은희, 신희천(2011). 감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12(1), 159-175.

- 신민향(2001). **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기술훈련 집단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소림(2015).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아영아, 이명희(2016). 성인애착이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상담연구**, 24(1), 89-106.
- 안성순(2017). **중학생의 기본심리욕구와 대인관계능력의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유진(2016). **부모애착, 자아분화수준,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현주(2001). **문제행동청소년을 위한 대인관계집단치료 프로그램의 적용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수진, 이정윤(2012). 대학생의 부모애착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3(4), 1921-1935.
- 오송희(1998).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서구, 최은영(2012). 가출청소년의 희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실무자 지지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1), 311-332.
- 윤성민(2014). 성인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자아분화와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9(4), 757-779.
- 윤성민(2019). 성인애착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31(4), 1139-1164.
- 윤성민(2017). 자아분화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 가족갈등대처행동,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및상담치료**, 29(4), 1115-1141.
- 윤성민(2016). 자아분화 수준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역할. **상담학연구**, 17(1), 107-123.

- 이경남(2003). 청소년의 애착과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2(1), 1-13.
- 이대인, 이자영(2021). 자아분화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 기본심리욕구와 자아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2(2), 499-514.
- 이명희, 김아영(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심리욕구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민화(2010).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 기본욕구의 충족과 대인관계**. 광주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준(2012). 가출청소년들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人間發達研究**, 19(1), 37-51.
- 이세정, 이호준.(2010). 가출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연구. **한국심리치료학회지**, 2(2): 13-25.
- 이윤영(2015).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대인관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성산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선(2020).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이성관계만족도의 관계: 자아분화와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정(2008). **대인관계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사회적 기술 및 학급응집력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장범(2012). **가출 청소년의 우울과 사회적 지지가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희(2000).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혜, 조영아(2014).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상담학 연구**, 15(2), 579-594.
- 이지홍(2016). **자아분화 수준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 기본심리욕구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채리(2017).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 :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진로결정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지(2005). 가출청소년 재 가출방지를 위한 지지체계의 보호요인. **청소년학연구**, 12(3), 283-304.
- 이혜수, 이희경(2011). 초심상담자의 성인애착과 심리적 소진의 관계: 기본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5), 1433-1449.
- 이희춘(2013). **가출청소년의 부모학대 경험과 우울의 관계 : 사회적 지지와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선화(2015). **대학생의 성인애착, 이성관계만족도, 자아분화 간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2004). 애착과 애착의 발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5(1), 16-27.
- 장휘숙(1997). 애착의 전생애 모델과 대물림 : 전생애 발달심리학적 조망에서 애착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6(1), 80-97.
- 전미숙, 김형모(2017). 컴퓨터이용 청소년의 생태체계적 요인이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5), 231-253.
- 전민경(2016). **경기도 가출청소년의 지지체계 실태 및 지원방안**.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 정경아(2015). **정서표현 양가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은(2008). **가출청소년의 가출생활 전환과정 연구-근거이론 접근**.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문자, 정혜정, 이선혜, 전영주(2012). **가족치료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성한, 김완일(2016). 재수생의 성인애착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 조망수용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6), 355-374.
- 정운숙, 박신애(2001). 청소년 가출에 관한 이론적 고찰.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2(1), 105-114.
- 정지선(2016). **직장인의 성인애착, 다차원적 완벽주의, 기본심리적욕구만족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윤(2014). **대학생의 성인애착유형과 대인관계능력에서 정서인식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천경(2019). **청소년의 자기조절력 및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학교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연주(2011).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문제의 연관성**.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미, 이희경(2013).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과 경험적 회피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1227-1245.
- 조영희, 정남운(2016). 성인애착,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 내면화된 수치심이 분노 표현 방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1), 169-190.
- 조천재(2019). **가출청소년이 지각하는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지지가 가정복귀 의도에 미치는 영향 : 적응유연성을 매개효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한익, 권혜연(2010). 청소년의 자기결정성 학습동기와 학업성취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11), 47-68.
- 최서연(2021). **가출청소년의 비행친구 교류정도와 학교생활부적응, 폭력비행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선, 주은지(2021).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가족 건강성과 마음챙김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2(3), 2663-2678.
- 최일심(2013). **여자 가출 청소년 자립 과정 연구 : 청소년쉼터 생활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해경, 김선숙(2009). 가출청소년의 가족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0(2), 89-108.
- 한상철(2008). 청소년 가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4(1), 273-298.
- 한소영, 신희천(200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439-464.

- 한승희(2020). **사회연결망분석에 기반한 가출청소년의 또래 네트워크 및 사회적 유능성 분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수연(2021). **감사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 기본심리적욕구만족과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이중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봉선, 남미애(2006). **청소년복지론**. 서울: 양서원.
- 홍세희, 노언경, 박민선(2010). 청소년의 가출빈도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와 생태체계적 변수들과의 관련성 검증. **청소년학연구**, 17(2), 181-201.
- 황아람(2010).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여정, 이정민, 김수혜(2020).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 연구 : 예비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연구보고 20-R24-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영훈, 박은영(2003). 애착이론과 자아분화이론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가족치료**, 11(1), 155-177.
- 황윤정(2016).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능력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5-716.
- Bartholomew, K., & Horowitz, L. M.(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ernan, W. H., & Sperling, M. B. (1994). *Attachment in adult: clin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360.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Bowen, M. (1982).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 London : Aronson, Inc.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Ed), *Family therapy*, 42-90. New York : Gardner Pres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46-76. New York, NY: Guilford Press.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3-35.
- Britton P. C., Fuendeling J. M. (2005). The relations among varieties of adult attachment and the components of empathy.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5(5), 519-530.
- Collins, N. L., & Read S. J. (1994)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The content and function of working model.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 5, 53-90.
- Crespi, T. D. and Sabatelli, R. M. (1993). Adolescent runaways and family strife: A conflict-induced differentiation framework. *Adolescence*, 28, 868-878.
- Deci, E. L. (1980). *The psychology of self-determination*. Lexington, MA: Heath.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Deci, E. L., & Ryan, R. M.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3-33.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 what" and "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Egeland, B., & Farber, E. (1984). Infant-mother attachment: Factors related to its development and change over time. *Child Development, 55*, 753-771.
- Fraley, R., & Waller, N. (1998). Adult attachment patterns: A test of the typological model. In J. Simpson & W. Rholes (Eds.), *Attachment the or yand close relationships*, 77 - 114. New York: Guilford.
- Fraley, R.C., Waller, N.G., & Brennan, K.A. (2000). An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 Gagne, M. (2003). Autonomy support and need satisfaction in the motivation and well-being of gymnasts.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5(4)*, 372-390.
- Garbarino, J., Wilson., J., and Garbarino, A. C. (1996). *Adolescent Runaway in trouble youth, troubled families. et(ed)*. New York: Aldine Publishing Company.
- Hansen, J. C & L'Abate, L. (1982). *Approaches to family therapy*. New York: Macmillan.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 A regression-based approach*. N.Y.: The Guilford Press.
- Hazan C.,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eider, F. (1964).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Relations*,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Hill, E. W., Hasty, C., & Moore, C. J. (2011). Differentiation of self and the process of forgiveness: A clinical perspective for couple and family therapy.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Family Therapy, 32(1)*, 43-57.
- Holmes J. (1993).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New York: Routledge.
- Homer. (1973). Community-based Resources for Runaway girls. *Social Casework, 54(8)*, 434-479.

- Horowitz, I. M. (1996).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blems: A leary Lega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ment*, 66, 283-300.
- Kerr, M. E., &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New York: Norton.
- Kerr, M. E. & Bowen, M. (2005). 보웬의 가족치료이론{*Family Evaluation: An Approach Based on Bowen Theory*}. (황영훈 외 역). 서울: 학지사.
- Kiesler, D. J. (1996). *Contemporary interpersonal theory and research: Personality, psychopathology, and psychotherapy*. New York: John Wiley & Son.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Kurtz, P.D., Kurtz, G.L. (1991). Problems of maltreated runaway youth. *Adolescence*, 26(3), 543-555.
- La Guardia, J. G., Ryan, R. M., Couchman, C. E., & Deci, E. L. (2000). Within-person variation in security of attachment: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attachment, need fulfillment,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3), 367-384.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8). Adult attachment and affect regulation.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503-531.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5). Attachment security, compassion, and altruis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1), 34-38.
- Perosa, L. M., Perosa, S L., and Tam, H. P. (2002). Intergenerational systems theory and identity development in young adult wome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Vol. 17, 235-259.
- Reeve, J. (2005).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motion*, (4th ed.). 『동기와 정서의 이해』 정봉교 등 역. 박학사, 2010.
- Robert A. R. (1987). *Runaways and Non-runaways*. NY: The Dosey Press.
- Rubin, K., Booth, C., Rose-Kransnor, L., & Mills, R. (1995). Social relationships and social skill: A conceptual and empirical analysis. In S. Shulman

- (Ed.). *Human development: Close relationships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63-94.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
- Ryan, R. M., & Deci, E. L. (2002). An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dialectical perspective. In E. L. Deci & Ryan (Eds.),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3-33. Rochester, NY: The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Ryan, R. M., & Deci, E. L. (2004). Avoiding death or engaging life as accounts of meaning and culture: comment on Pyszczynski et al. *Psychological Bulletin*, 130(3), 473-477.
- Schlein, S., & Guerney, B. (1977). *Relationship change scale*. In *Relationship enhancement: skill-training program for therapy, problem prevention*.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ullivan, H. S. (1953). *The interspersed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 W, Norton.
- Thompson, R. A., Lamb, M. E., Estes, D. (1982). Stabil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and its relationship to changing life circumstances in an unselected middle-class sample. *Child Development*, 53, 144-148.
- Wei, M., Shaffer, P. A., Young, S. K.,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shame, depression, and loneliness: The mediation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591-601.
- West, M., Sheldon, A., & Reiffer, L. (1987). An approach to the delineation of adult attachment: Scale development and reliability.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5(12), 738-741.
- Whitbeck, L. B., & Hoyt, D. R. (1999). *Nowhere to grow: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and their families*. NewYork: Transaction Publishers.

[보도자료]

여성가족부(2021.2.2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7609에서 2022년 6월 5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2017.1.24).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정책 개선 권고.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searchselect=boardtitle&searchword=%EC%B2%AD%EC%86%8C%EB%85%84&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616529>에서 2022년 6월 5일 인출.

[법령자료]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저체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421&lsiSeq=231693#0000>에서 2022년 6월 5일 인출.

「청소년기본법」 법저체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dt=20201211&query=%EC%B2%AD%EC%86%8C%EB%85%84%EA%B8%B0%EB%B3%B8%EB%B2%95+%EC%A0%9C3%EC%A1%B0+%EC%A0%9C1%ED%95%AD&subMenuId=15#undefined>에서 2022년 6월 5일 인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법저체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EC%A7%80%EC%9B%90%EB%B2%95%EC%8B%9C%ED%96%89%EB%A0%B9/\(20220101,32007,20210924\)](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EC%A7%80%EC%9B%90%EB%B2%95%EC%8B%9C%ED%96%89%EB%A0%B9/(20220101,32007,20210924))에서 2022년 6월 5일 인출.

<Abstract>

The Effects of Out-of-Home Adolescents
Adult Attachmen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Using Serial Mediators of Self-Differentiation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Cho Bo Young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Bo 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family, and social factors that affect the process of adolescents out of the home growing up as members of society, and to sugges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increasing the psychosocial adaptation level of out-of-home adolescents. Therefore, by assuming adult attachment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interpersonal ability, ego differentiation,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as major variables, this study tried to verify the relative

influence of major variables affecting the interpersonal ability of out-of-home adolescents. The related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research ques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nd interpersonal ability, do ego differentiation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sequentially mediat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96 out-of-home adolescents between the ages of 15 and 24 who are being protected by youth welfare facilities in 52 places in 16 cities and provinces across the country.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to measure differentiation,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interpersonal ability. For the collected data,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equential mediating effect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8.0 and PROCESS Macro 4.0, and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mediating effects was verified by applying the bootstrapping method.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nd interpersonal ability, the mediating effect of ego differentiation was not significant, and the mediating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was significant. Basic psychological needs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interpersonal ability, and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voidance and interpersonal ability.

Second,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ego differentiation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were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nd interpersonal ability. Differentiation of self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complete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interpersonal ability sequentially, and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voidance and interpersonal ability sequentially.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attachment anxiety and attachment avoidance, two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affect the interpersonal ability of adolescents outside the home in different ways. In addi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that, in addition to the main mediating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ego differentiation and basic psychological needs were simultaneously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ce) and interpersonal ability.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data for rethinking the perception of out-of-home youth as an autonomous and independent subject of life, and for establishing counseling strategies and developing programs to improve interpersonal skills of out-of-home youth.

Keywords: Out-of-Home Adolescents, Adult Attachment, Interpersonal Ability, Self-Differentiation, Basic Psychological Needs, Sequential Mediation Effects

[부록]

설문지

안녕하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의 연구대상자는 가정 밖 청소년이며, 설문 결과는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연구 참여는 자발적 의사로 진행되며, 여러분의 정보와 응답 내용은 통계법 33조 규정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연구를 위한 통계적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설문은 대략 15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모든 문항에 정답은 없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소중한 연구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최보영

연구자: 조보영

안내문을 읽고, 설문 조사를 통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 다음은 귀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해당란에 v 표시 또는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2. 나	이:	만 ___ 세		
3. 지	역:	① 서울	② 경기	③ 기타 _____
4. 학업	상황:	① 재학 (<input type="checkbox"/>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대학교)		
		② 졸업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input type="checkbox"/>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대학교)		
		③ 기타 (_____)		
5. 가정	밖 생활	기간:	총 _____ 개월	
6. 일(아르바이트)	경험:	① 있다	② 없다	

■ 추가 안내 사항입니다.

1. 연락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기재해주시면, 감사의 의미로 기프트콘(100%)을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휴대폰 번호□ / 카톡 아이디□ / 페이스북 아이디□ [_____]

2. 무성의한 응답의 경우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없기에 쿠폰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3. 기재해주신 연락처는 연구 종료 후 즉시 폐기할 것입니다.

부록 1. 성인 애착 척도

※ 다음 문항들을 읽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나 행동, 또는 느낌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실제 경험이 없다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이라고 가정을 한 후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때로 다른 사람들은 분명한 이유 없이 나에게 대한 그들의 감정을 바꾸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비교적 쉬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다른 사람들이 내게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다른 사람들은 내가 화나 있을 때만 나에게 주목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다른 사람들은 나와 내 욕구를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버림받을까 봐 걱정하는 일은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에 대해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만큼 그들도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봐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 속 깊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칠까 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얻고자 하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주지 않을 때는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표현했을 때, 그들이 나에게 대해 같은 감정이 아닐까 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을까 자주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다른 사람들에게 속내를 털어놓는 것이 편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회의가 들도록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조금 그렇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갖는 호감만큼 그들도 내게 강한 호감을 가지기를 자주 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 대해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내 욕구 때문에 도리어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지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걱정하는 일은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다른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만큼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다른 사람들이 잠시 떠나 있으면 그들이 나 아닌 누군가에 관심을 갖게 될까 봐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다른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매우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다른 사람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9.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0.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1.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을 까봐 자주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2.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3. 내 문제나 걱정거리를 보통 다른 사람들과 의논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4. 사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 대해 편안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5. 다른 사람들이 내게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6.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 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록 2. 대인관계능력 척도

※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인간으로서 나 자신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사람은 나를 만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원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다른 사람이 바라는 것을 잘 깨닫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쉽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은 예민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이해해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표현은 개방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다른 사람의 느낌을 잘 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늘 친근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대인관계에 자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 일치 안 될 때 잘 해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다른 사람과 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느낌을 잘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개인적 관심사를 다른 사람과 잘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좋은 느낌을 표현할 때 그것을 발전적으로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22.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 안 좋은 느낌을 표현할 때 그것을 발전적으로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다른 사람과 앞으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3. 자아분화 척도

※ 다음 1번~13번 문항은 여러분의 최근 2년 간의 전반적인 행동, 경험 및 의견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하는 일이 많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말부터 해 놓고 나중에 가서 그 말을 후회하는 일이 많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비교적 내 감정을 잘 통제해 나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욕을 하고 무엇이든 부수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에 잘 말려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남이 지적할 때보다 내가 틀렸다고 여길 때 의견을 더 잘 바꾼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대다수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 의견을 더 중시한다.	①	②	③	④
10. 논쟁이 일더라도 필요할 때에는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내 말이나 의견이 남의 비판을 받으면 얼른 바꾼다.	①	②	③	④
12. 내 계획이 주위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잘 바꾼다.	①	②	③	④
13. 주위의 말을 참고는 해도 어디까지나 내 소신에 따라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 다음 14번~36번 문항은 아동기 및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행동, 경험 및 의견을 묻는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자라면서 부모님이 나에게 대해 근심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①	②	③	④
15. 부모님은 내가 미덥지 못해서 지나치게 당부하는 일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16. 우리 부모님은 형제들 중 유독 나 때문에 속 썩는 일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17. 부모님은 내게만 문제가 없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다는 말을 많이 하셨다.	①	②	③	④
18. 내가 처한 상황은 부모님이 전부터 입버릇처럼 말해오던 그대로이다.	①	②	③	④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 내 걱정이나 근심은 옛날 부모님이 전부터 입버릇처럼 말해오던 그대로이다.	①	②	③	④
20. 부모님과 떨어져 살면 대단히 불편하리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1. 가정을 떠나는 것이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①	②	③	④
22. 나는 부모님 슬하에서 하루 빨리 독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23. 부모님과 자주 다투기보다는 안보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4. 나는 자라면서 집을 나가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껴왔다.	①	②	③	④
25.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과 별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26. 내가 자랄 때 우리 가족은 자기 본분을 다했다.	①	②	③	④
27. 우리 가족은 심각한 일이 있어도 가족 간에 금은 잘 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8. 가족 간에 갈등이 있어도 서로 상의해가면서 잘 해결해왔다.	①	②	③	④
29. 우리 가정에는 소리를 지르거나 주먹다짐을 하는 일은 드물었다.	①	②	③	④
30.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부모님은 차분하게 잘 처리하셨다.	①	②	③	④
31. 우리 가정은 대체적으로 화목하고 단란했던 편이다.	①	②	③	④
32. 우리 가족은 각자 의견이 달라도 서로 존중해 준 편이다.	①	②	③	④
33. 나는 어릴 때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34. 우리 가족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도 잘 싸웠다.	①	②	③	④
35. 부모님은 나를 낳았을 뿐, 교육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36.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부록 4. 기본심리욕구 척도

※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통제받고. 억압을 받는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일을 진행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많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3. 일상생활에서 나는 자주 남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대체로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처리방식을 따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 자신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대부분 내가 하는 일들로부터 성취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일을 잘한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많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잘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정말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내 주변 사람들과 나는 평소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내 주변 사람들은 평소에 나와 감정을 공유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